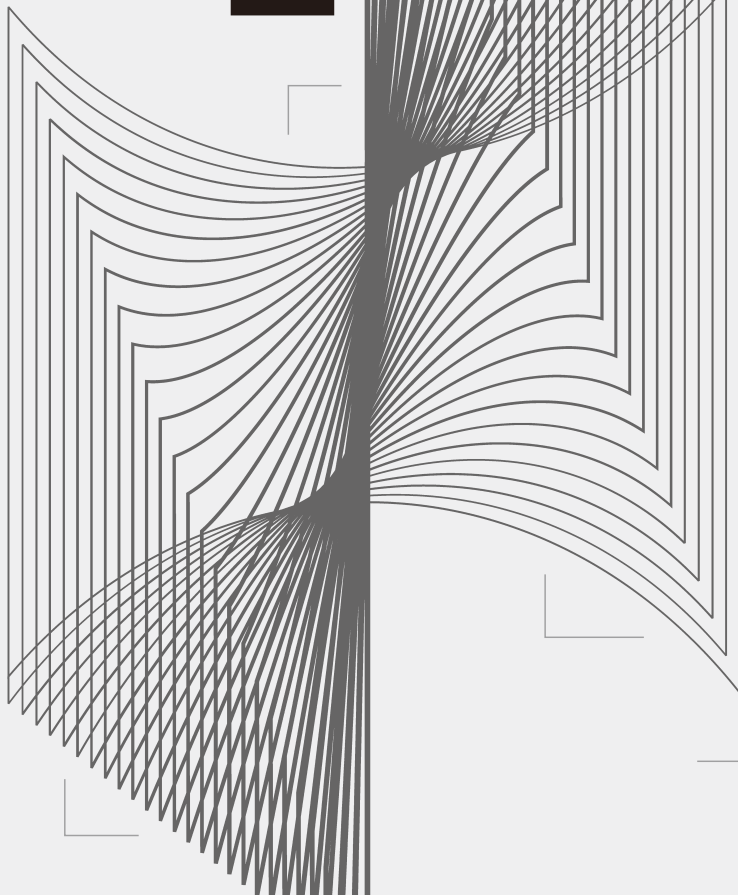


논단

가톨릭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인간연구』 제56호

(2025/여름)



제1저자: 877277440@qq.com

손복(孫復)『춘추존왕발미(春秋尊王發微)』에 나타난 “존왕(尊王)” 사상 연구

장상량(성균관대학교 · 유학동양한국철학과 · 박사수료)

I. 서론

■ 『춘추』는 유가(儒家)의 오경(五經) 중 하나로, 공자(孔子)가 산정(刪定)한 이후 “미언대의(微言大義)”의 경전으로 높이 평가되어 왔으며, 이 속에 내포된 정치철학은 후대에 이르러 더욱 중시되었다. 역대의 경학자들은 모두 『춘추』의 대의를 해명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으며, 그 가운데 “존왕양이(尊王攘夷)”는 『춘추』의 기본적 지향으로서, 경의(經義)의 해석과 왕도 정치의 재건에 있어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였다. 특히 “존왕(尊王)”이라는 명제는 고대 왕권의 정당성과 관련될 뿐 아니라, 예제 질서, 명분과 위계, 중앙과 지방 권력 간의 역사적 긴장 혹은 윤리적 판단과도 직결되는 것으로서, 사상사(思想史)적과 제도사(制度史)적 측면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북송(北宋)이 건국된 초기에는 오대(五代)의 혼란을 막 벗어난 시점으로, 천하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고 왕도적 질서 또한 회복되지 않았다. 이 시기 사대부들은 대체로 예법을 회복하고 왕실을 존숭하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경학이 다시 흥성하게 되었다. 특히 『춘추』는 유학자들이 정치적 논의를 전

개하고 유교적 질서를 재구성하는 사상적 무기로 작용하였다. 손복은 이러한 시기의 대표적 인물로, 그의 저작 『춘추존왕발미』는 “존왕”을 중심 원리로 삼아 『춘추』 경문을 체계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북송 춘추학의 선구를 이루었으며, 후대 “신춘추(新春秋)”의 리(義理)학과에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한 사람의 사상은 그 사람의 생애와 필연적 관련을 갖는다. 따라서 아래에 손복의 생애를 간략히 서술하고자 한다. 손복(孫復, 992~1057)은 자(字)는 명복(明復), 호(號)는 부춘(富春)이며, 세간에서는 “손태산(孫泰山)” 또는 “태산선생(泰山先生)”으로 불렸다. 그는 북송(北宋) 진주평양(晉州平陽), 지금의 산서성(山西省) 임분(臨汾) 출신으로, 북송 초기의 중요한 경학자 중 한 사람이다. 호애(胡瑗, 993~1059), 석개(石介, 1005~1045)와 함께 “송초삼선생(宋初三先生)”이라 병칭되었으며, 경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고, 특히 춘추학(春秋學)으로 명성이 높았다. 손복의 생애에 관한 기록은 간략하여 『송사(宋史)』, 「유림전(儒林傳)」에는 불과 백여 자 정도만이 전해진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속자치통감장편(續資治通鑑長編)』, 『송원학안(宋元學案)』 및 여러 문인들의 필기와 문집 등을 통해 그의 행적을 보완하고 학문적 궤적을 재구성해 왔다. 『송사』, 「유림전」에는 “진사에 급제하지 못하고 물러나 태산(泰山)에 거처하였다.”* 고 하였고, 『송원학안』, 「태산학안」에는 “네 차례 개봉부(開封府) 진사 시험에 낙방하고 태산에 은거하였다.”** 고 전하

* 舉進士不第，退居泰山。脫脫，『宋史』，「儒林傳」，北京：中華書局，1995，12832쪽.

** 四舉開封府籍進士不第，退居泰山。黃宗羲，『宋元學案』，「泰山學案」，北京：中華書局，1986，72쪽.

며, 『조래석선생문집(徂徠石先生文集)』, 「명은(明隱)」에도 “선생은 진사 시험에 네 번 응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들에 따르면, 손복은 젊은 시절 네 차례나 진사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모두 낙방하였고, 결국 뜻을 접고 태산에 은거한 것으로 보인다.

손복은 992년 송태종(宋太宗) 순화(淳化) 3년에 태어나, 1057년 인종(仁宗) 가우(嘉祐) 2년에 세상을 떠났으며, 태종·진종(真宗)·인종에 걸쳐 활동하였다. 향년은 예순여섯이었다. 그는 젊은 시절 가세가 빈궁하였고, 부친을 일찍 여의어 모친과 함께 살아야 했으며, 어린 시절부터 학문에 힘을 쏟았다. 청년기에는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범중엄(范仲淹, 989~1052)에게 도움을 청하였으며, 범중엄은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를 후원하였고, 응천부학(應天府學)이라는 관직에 천거하였다. 1034년 인종(仁宗) 경우(景祐) 원년, 손복은 남경(南京)에서 당시 남경유수(南京留守) 추관(推官) 겸 응천부학 제거(提舉)의 직을 맡고 있던 석개(石介)를 만나게 되었으며, 두 사람은 서로의 학덕을 깊이 인정하고 나이 차이를 넘는 우정을 맺었다. 석개는 손복의 혼인을 주선하였으며, 또한 태산(泰山) 조래(徂徠)에 집을 짓고 그를 초청하여 강학하게 하였다. 이때부터 손복은 태산에 정착하여 경학의 강설에 전념하고, 다시는 과거를 통한 출세를 추구하지 않았다. 석개는 손복을 스승으로 섬기며 제자의 예로써 그를 대우하였다.** 1042년 인종(仁宗)

* 先生凡四舉進士。石介, 『徂徠石先生文集』, 北京: 中華書局, 1984, 95쪽.

** 선생(손복)은 또한 자신의 도(道)를 제자들에게 전하였고,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을 책으로도 남겨, 그 책이 널리 퍼지고 그 도가 크게 빛나게 하려 하였다. 이에 태산(泰山)의 남쪽에 학사(學舍)와 강당을 세우고, 옛 성현들의 책들을 방 안 가득히 모아 제자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 선생은 일찍이 “공자

경력(慶曆) 2년에 이르러, 손복은 조정의 부름을 받아 국자감(國子監) 직강(直講)으로 임명되었고, 곧이어 이영각(逯英閣)에 초청되어 경서를 강론하였다. 이때 오품복(五品服)을 하사받았으나, 강학 중에 당시 유학자들과 종종 충돌하였기에 곧 파면되었다. 경력7년, 손복이 저술한 『춘추존왕발미』가 ‘공직온 사건(孔直溫事件)’*에 걸릴되었고, 그 문장은 준엄하고 포폄이 엄격하였기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사람들은 그가 지나치게 엄정하다고 평하며, 인정을 해아리지 않는다고 하였다. 『사고전서(四庫全書)』를 편찬한 관원들도 이에 대해 “난신적자를 모두 단죄하지 않는다면, 성인 또한 반드시 절취(節取)하여 기록하였을 것이다. 어찌하여 천왕으로부터 제후, 대부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건도 빠짐없이 모두를 단죄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라 평하였는데, 이는 손복의 해경 방식이 성리학의 정형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독자적인 입장을 지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의 마음을 다한 것은 『대역(大易)』이요, 공자의 실용을 다한 것은 『춘추(春秋)』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성인의 최고의 필법이며, 세상을 다스리는 큰 법도라 하였다. 그러므로 『역설(易說)』 64편과 『춘추존왕발미(春秋尊王發微)』 12권을 지었다. 先生亦以其道授弟子, 既授之於弟子, 亦傳之於書, 將使其書大行, 其道大耀. 乃於泰山之陽起學舍講堂, 聚先聖之書滿屋, 與群弟子而居之. (….) 先生嘗以『盡孔子之心者』『大易』, 『盡孔子之用者』『春秋』, 是大聖人之極筆也, 治世之大法也. 故作『易說』六十四篇, 『春秋尊王發微』十二卷. 石介, 『徂徠石先生文集』, 『泰山書院記』, 北京: 中華書局, 1984, 223쪽.

* 歐陽修, 『歐陽文忠公集』, 『孫明復先生墓誌銘』: 경력(慶曆) 7년, 서주(徐州) 사람 공직온(孔直溫)이 망령된 음모를 꾸민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심문을 받았고, 관헌이 그의 집을 수색하던 중 시문에서 선생(손복)의 이름이 발견되었다. 이로 인해 선생은 연좌되어 건주(虔州)에서 상세(商稅)를 감독하는 관직으로 강등되었으며, 이후 사주(泗州)로 옮겨졌고, 다시 하남부(河南府) 장수현(長水縣)의 지현(知縣)으로 전임되었다. 이어서 응천부(應天府) 판관 공무를 겸임하였고, 능주(陵州) 통판(通判)으로 부임하였다. (慶曆) 7年, 徐州人孔直溫以狂謀捕治, 索其家得詩, 有先生姓名, 坐貶監虔州商稅, 徙泗州, 又徙知河南府長水縣, 簽署應天府判官公事, 通判陵州.

** 『四庫全書總目』, 『經部二十六·春秋類一·春秋尊王發微』十二卷·內府藏本: 如不盡亂臣賊子, 則聖人亦必有所節取. 亦何至由天王以及諸侯’ 大夫無一人一事不加誅絕者乎?

관료로서 손복은 줄곧 순탄하지 못하였으며, 여러 차례 좌천을 겪었다. 석개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봉당의 화를 입어 건주(虔州)에서 상세(商稅)를 감독하는 관직으로 강등되었다. 만년에는 한때 능주(陵州) 통판(通判)으로 부임할 예정이었으나, 조개(趙概, 995~1083) 등 여러 인물이 상소를 올려 억울함을 소명해 준 덕분에 직강(直講)의 직책에 유임되었고, 이후 전중승(殿中丞)으로 승진하였다.

학술적 기여 측면에서 볼 때, 손복은 평생 『춘추』 연구에 전념하였으며 저술도 풍부하였으나, 대부분 흩어져 전하지 않는다. 역사서*에 따르면, 그는 『춘추총론(春秋總論)』 3권, 『역설(易說)』 64편, 『수양자집(睢陽子集)』 10권 등을 저술하였으나 현재는 전하지 않는다. 오늘날에 전하는 것은 오직 『춘추존왕발미』 12권으로, 그의 춘추학 사상이 집약적으로 담긴 저술이다. 이 외에 청대(淸代) 학자들이 편찬한 『손명복소집(孫明復小集)』에는 문장 19편과 시 3수가 수록되어 있으며, 근대의 완원(阮元, 1764~1849) 등이 유문(遺文)을 수집하여, 「세자괘괘여론(世子蒯賁餘論)」, 「시건문묘기(始建文廟記)」, 「상국부계(上國撫啓)」 등의 문헌과 「중추월(中秋月)」, 「검지(劍池)」 등 몇 수의 시편을 정리하였다.

종합하건대, 손복의 학문은 『춘추』의 “존왕양이(尊王攘夷)”라는 대의를 기반으로 하며, “성인으로부터 절단됨”[斷自聖人]이라는 포폄 원칙을 근간으로 삼고, 준엄하고 직절함을 특징으로 한다. 그의 춘추학은 한·당(漢唐)의 경의 전통과 송초(宋初)의 경세

* 『송사(宋史)』, 『예문지(藝文志)』, 『문헌통고(文獻通考)』,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 등에 수록된 손복(孫復)의 저작 기록을 참고하였음.

이상을 융합하여, 경학의 정밀한 해석과 사회 비판 정신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는 송초 춘추학의 새로운 풍조를 여는 데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석개(石介), 여조겸(呂祖謙, 1137~1181), 진부량(陳傅良, 1137~1203) 등 후대 경학자들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기에 북송 이학(理學)을 경학과 교차시킨 핵심 인물 가운데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손복의 『춘추존왕발미』가 성립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춘추존왕발미』는 손복의 대표적 저술로, 그가 태산(泰山)에 은거하여 강학하던 시기 제자 조무택(祖無擇, 1011~1084)이 강의 내용을 정리하여 편찬한 것이다. 초본은 본문 12권과 『춘추총론(春秋總論)』 3권을 합한 총 15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송사(宋史)』, 「유림전(儒林傳)」과 이도(李焘, 1115~1184)의 『속자치통감장편(續資治通鑑長編)』에 따르면, 인종(仁宗) 재위 중 추밀사(樞密使) 한기(韓琦, 1008~1075)가 손복의 병상 수고본 15권을 궁중 비서고에 보관하고자 초록관(抄錄官)을 파견하여 사본을 작성케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춘추총론』은 유실되고, 현재는 본문 12권만이 전한다.* 「은공(隱公)」 원년부터 「애공(哀公)」 14

* 李焘, 『續資治通鑑長編』, 「卷一百八十六·嘉佑二年·十一月己亥」: “전중승(殿中丞) 겸 국자감 직강(國子監直講)인 손복(孫復)은 『춘추』를 연구함에 있어 전주(傳注)에 의존하지 않았고, 그 해석은 간명하고 평이하였다. 제후와 대부의 공과(功過)를 밝히고, 시대의 성쇠를 고찰하며, 이를 통해 왕도(王道)의 치란(治亂)을 미루어 살펴보았으니, 경문의 본 뜻을 파악한 바가 많았다. 병을 얻자, 추밀사(樞密使) 한기(韓琦)가 황상에게 아뢰어 서리(書吏)를 선발하고 종이와 붓을 하사한 뒤, 제자 조무택(祖無擇)으로 하여금 곧바로 손복의 집에서 이를 필사하게 하였고, 모두 15권의 저술을 얻어 비서각에 보관하였다. 殿中丞 國子監直講孫復, 治春秋, 不惑傳注, 其言簡易, 明于諸侯大夫功罪, 以考時之盛衰, 而推見王道之治亂, 得經之本義為多. 既疾, 樞密使韓琦言于上, 選書吏, 給紙札, 命其門人祖無擇即復家錄之, 得書十五卷, 藏祕閣.” 『중흥서목(中興書目)』에 따르면, 앞에 언급된 이 15권에는 『춘추존왕발미』 12권 외에 『춘추총론(春秋總論)』 3권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현재 『총론』은 이미 전실되고 본서만이 남아 전하고 있다.

년에 이르기까지 『춘추』 경문을 편년 순서에 따라 조목별로 해석하고 논평하였으며, 체계적이고 완결된 해경 구조를 갖추고 있다. 손복은 저서 전반에 걸쳐 “존왕(尊王)”이라는 대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모든 역사 사건을 경문에 근거하며, 그 속에 담긴 예법의 시비를 정밀하게 분석하였다.

손복의 『춘추존왕발미』는 북송(北宋) 초기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정치 구도와 진흥되는 경학 분위기 속에 성립된 저작이다. 북송 춘추학의 시초적 저작으로서 『춘추존왕발미』는 손복 개인의 경학적 소양과 유학적 신념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당시 국가의 정국, 문화 정책, 그리고 사대부 정신 세계에 대한 그의 독특한 견해를 내포하고 있다.

북송(北宋) 건국 초기에 직면했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오대(五代) 시기부터 이어진 지방의 할거(割據)와 번진(藩鎮)의 전횡 문제였다. 송태조(宋太祖)는 재상 조보(趙普, 922~992)의 “권한을 조금씩 거두고, 재정과 군량을 통제하며, 정예 병력을 수거하면 천하는 저절로 안정될 것이다.”*라는 건의를 받아들여, 정치, 경제, 군사 등 여러 측면에서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강간약지(強幹弱枝)’로 요약되는 중앙집권 전략을 추진하였다. 동시에 ‘문을 숭상하고 무를 억제하는[重文抑武]’ 문화 정책을 펼치고, ‘사대부를 죽이지 않는다’는 맹세를 세웠다. 왕부지(王夫之, 1619~1692)의 『송론(宋論)』에는 “태조가 사대부를 죽이지 않겠다는 맹세를 세워 자손에게 명하였고, 송대 전체를 통틀어 문신(文臣)은 칼에

* 司馬光, 『涑水紀聞』卷一: 惟稍奪其權, 製其錢谷, 收其精兵, 則天下自安矣.

맞아 죽는 형벌을 받는 일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와 함께 송태조는 유학의 도통(道統)을 회복하고, 유교적 이념의 정통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춘추』는 유가 경전 가운데 가장 왕도적 정치사상을 함축하고 포폄의 법도를 담은 경서로서, 당시 경학 체계의 핵심으로 자연스럽게 부각되었다.

송초(宋初)의 학자들은 당대(唐代) 『오경정의(五經正義)』 등 구주(舊註)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으며, ‘전을 버리고 경을 구한다.(舍傳求經)’는 학문적 태도를 제창하였다. 즉 『춘추좌씨전』·『춘추공양전』·『춘추곡량전』 등 삼전(三傳)의 주해에 의존하지 않고, 경문 자체를 직접 독해하여 의리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손복은 평생 『춘추』를 전공하였고, 이를 자신의 학문적 기반으로 삼았는데, 이는 기존의 주석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선유(先儒)의 주해가 경문의 본뜻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고 보았으며, 공자의 원래 의도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른 한편, 『춘추』는 공자가 직접 찬술한 편년체 사서로서 “미언대의(微言大義)”를 통해 정치적 포폄을 담고 있으며, 존왕양이(尊王攘夷) 등의 이념을 내포하고 있어 송초 중앙집권과 기강 정비라는 시대적 요청과 자연스럽게 부합한다고 여겼다. 특히 『춘추』의 대의는 “천자를 높이고 제후를 내친다.[尊天子, 黜諸侯]”는 데 있는데, 이는 존왕을 통해 강상을 바로잡고, 제후를 폄하함으로써 찬탈과 월권을 억제하고자 하는 가치 지향을 반영한다. 이미 맹자(孟子)

* 王夫之, 『宋論』, 「卷一·太祖·四」: 自太祖勒不殺士大夫之誓以詔子孫, 終宋之世, 文臣無歐刀之辟.

는 “공자가 『춘추』를 완성하자 난신적자가 두려워하였다.”*고 하였으며, 손복은 이를 체득하여 『춘추』를 통해 주례(周禮) 질서를 회복하고, 엄정한 필법으로 역사 인물에 대한 포폄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그의 해석은 제도와 명분을 넘는 모든 찬탈적 행위를 강력히 비판하고, 군권(君權)을 중심으로 하는 왕도 정치의 이념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였다. 따라서 『춘추존왕발미』는 손복의 경세치용(經世致用) 사상을 반영함과 동시에, 북송 초기 중앙집권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저술이라 할 수 있다. 그는 구전(舊傳)을 버리고 경의(經義)를 해석하며, “존왕양이”를 핵심 개념으로 삼음으로써 경문을 조목별로 새롭게 해석하였다. 이는 현실 정치에 대한 응답이자, 송초 유학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춘추존왕발미』의 저술은 단순한 학문적 성과를 넘어, 제도 재건과 문화 재정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유학자의 적극적 참여로 이해할 수 있다.

사상사적 관점에서 볼 때, 북송(北宋) 초기 사대부 계층은 점차 “선비는 천하를 자신의 책임으로 여긴다.(士以天下爲己任)”는 자각의식을 형성해 나갔다. 『춘추존왕발미』가 저술된 시기는 때마침 경력신정(慶曆新政)을 앞두고 있던 시기로, 조정 내부에서는 치국(治國)과 이정(理政)에 관한 논쟁이 격화되었으며, 범중엄 등을 중심으로 한 개혁파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에 반해 손복은 태산에 은거하여 강학하며 경전을 통해 정치 이론을 논하고 이상적 정치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시기 손복은 요

* 『孟子註疏』, 「滕文公 下」: 孔子成春秋, 而亂臣賊子懼.

(遼)나라와 송(宋)나라의 대치, 서하(西夏)의 굴기 등 외부의 긴장 국면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였고, 조정이 ‘전연의 맹(澶淵之盟)’과 ‘경력화의(慶曆和議)’ 등 현실적 타협을 보여주는 모습을 목도하였다. 이로 인해 그는 국가의 강약, 군신의 강상(綱常), 그리고 천하 질서에 대해 더욱 깊은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춘추존왕발미』에서 나타나는 “존왕양이”의 입장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사대부들이 품고 있던 왕도 중흥에 대한 강렬한 기대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종합하건대, 『춘추존왕발미』의 저술은 북송(北宋) 초기 정치의 정비, 문화의 부흥, 사대부의 각성이라는 세 흐름이 맞물려 탄생한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손복은 유자(儒者)의 입장에서 제도 창설과 문교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시대의 흐름 속에서 『춘추』를 해석함으로써 존왕치란(尊王治亂)이라는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그는 이를 통해 도통(道統)을 회복하고 시정(時政)을 바로잡기를 희망하였는데, 그 속에는 역사적 책임의식과 함께 정치적 이상주의가 내포되어 있다. 이 저작은 송대(宋代) 춘추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이학(理學)이 본격적으로 성립되기 이전 유학이 경세치용(經世致用)을 지향하며 회귀하였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복의 춘추학은 춘추학 연구에서 여전히 주변적인 위치에 머물러 있다. 특히 『춘추존왕발미』는 오랫동안 널리 전파되지 못하였고, 본문의 유실과 복잡한 판본 계승 문제로 인해, 그 “존왕” 사상의 내적 구조, 역사적 함의, 사상사적 영향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에 이르러서야

송대 경학사상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고, 문헌 정리 작업이 진전되면서 손복의 춘추학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대체로 그의 “사전구경(舍傳求經)”적 해석 방법에 치중하거나 “존왕”이라는 개념의 정치적 기능을 거시적으로 조명하는 데 그쳤으며, “존왕” 사상의 구체적 함의와 내재적 논리에 대한 해명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편이다.

본고는 텍스트 분석과 사상사적 고찰을 병행하는 방법론에 입각하여, 손복이 『춘추존왕발미』에서 제시한 “존왕” 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형성 배경, 구조적 논리 및 이론적 지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북송 초기 정치 현실과 문화적 변동을 살펴보고, 왕도(王道)를 중심으로 하는 가치 체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춘추학에 대한 손복의 이해를 심화시키고, 북송 경학사에서 그의 위상을 재평가하며, 나아가 유가의 “춘추대의”가 지닌 역사적 전개와 사상적 기능을 이해하는 데 하나의 중요한 이론적 원칙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하여 “존왕” 사상이 유가 정치철학 속에서 지니는 통시적인 의미를 밝히고, 경학이 특정 시대적 맥락에서 정치 현실에 어떻게 응답하며 질서 이념을 구성하는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확인해보고자 한다.

II. 손복『춘추존왕발미』에 나타난 ‘존왕’ 사상의 내용

- “존왕” 사상은 『춘추』의 전통 속에서 유구한 계보를 지니는

데, 이는 선진(先秦) 유가 사상에 기원한다. 『춘추공양전』은 『춘추』 속에 “존왕양이(尊王攘夷)”라는 대의가 내포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주나라 천자(周天子)를 숭상하고 용적(戎狄)을 배척하여 화하(華夏)의 정통을 수호할 것을 주장하였다. 손복이 활동하던 북송(北宋) 초기에는, 통치자가 오대(五代)의 혼란을 수습하고 중앙 집권적 통일 국가를 재건하고자 하던 시기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시기에는 ‘숭문억무(崇文抑武)’의 정책으로 인해 유학의 치도(治道)가 중시되었고, 경학의 부흥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시대적 맥락에서 존왕 사상은 현실 지향성을 갖추게 되었으며, 군주의 권위에 대한 존송을 통해 대일통(大一統)이라는 정치 질서를 공고히 하게 되었다. 손복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예리하게 포착하여, “존왕”의 이념을 『춘추』에 대한 새로운 해석 속에 녹여냄으로써 시국을 바로잡고 세상을 구제하는 무기로 전환시켰다.

손복은 『춘추존왕발미』, 「은공(隱公)」 원년에서 “원년춘왕정월(元年春王正月)”을 해석할 때 『춘추』의 저작 목적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명확히 밝혔다. 그는 서두에서 『춘추』는 “천하에 왕이 없기 때문에 지어진 것”이라 단언하고, 이어 “호령이 시행되지 않으며[號令不行], 상벌이 명확하지 않고[賞罰不明], 예가 무너지고 악이 어지러우며[變禮亂樂], 임금을 시해하고 아버지를 해치며[弑君戕父], 나라를 빼앗고 왕호를 도용하며[攘國竊號], 정벌이 사방에 일어나는[征伐四出]”* 등 무왕(無王)의 폐해를 열거한다. 그리고 “『춘추』가 은공(隱公)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이때부터 천하에 다시는 왕

* 孫復, 『春秋尊王發微』, 「隱公」 원년.

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한다. 이와 같이 손복은 『춘추』의 저술이 무왕의 시대를 반성하고 존왕(尊王)의 이상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 보았는데, 이것이 『춘추존왕발미』 전편을 관통하는 핵심 사상이라 할 수 있다.*

공자가 『춘추』를 지은 것은, 천하에 더 이상 왕이 없었기 때문이며, 은공(隱公)을 위해 지은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춘추』가 은공으로부터 시작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바로 주나라 평왕(周平王)으로 왕도가 사실상 종결되었기 때문이다. 옛날 주나라 유왕(周幽王)이 화를 당하고 평왕이 동천하였으나, 평왕은 더 이상 왕으로서의 권위를 행사하지 못하였고, 이로써 주나라(周)의 도는 단절되었다. 평왕 이후를 살펴보면, 주나라 왕실(周王室)은 미약해지고 제후는 강성해졌으며, 조현(朝覲)의 예는 무너지고, 공세(貢稅)의 의무는 이행되지 않았으며, 명령은 구속력을 잃고, 상벌은 집행되지 않았다. 법도를 파괴하고 기강을 전도시키는 자가 있었고, 예를 변질시키고 음악을 어지럽히는 자가 있었으며, 임금을 시해하고 아비를 해치는 자가 있었고, 나라를 빼앗고 칭호를 도용하는 자가 있었으며, 사방에서 정벌이 일어나도 제지할 수 없었다. 천하의 정치와 중국의 사무는 모두 제후들이 나눠 가졌고, 평왕은 어리석고 우매하였으며, 주나라 효왕(周孝王)을 거쳐 주나라 혜왕(周惠王)에 이르기까지 중흥을 이루지 못하였다. 국운은 흔들리고 기울어 점차 쇠미해졌으며, 마침내 은공(隱公) 때에 이르러 주나라

* 王博, 『孫復『春秋尊王發微』之“尊王”研究』, 中國政法大學, 2014, 21쪽.

는 사실상 몰락하였다. 사람이 살아 있다면 기대할 바가 있겠으나, 죽음에 이르러서는 더는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시경(詩經)』은 「서리(黍離)」부터 쇠퇴하였고, 『서경(書經)』은 「문후지명(文侯之命)」 이후로 끊어졌으며, 『춘추』는 「은공」부터 시작된 것이다. 『시경』이 「서리」부터 쇠퇴한 것은, 천하에 더 이상 아(雅)가 없었기 때문이며, 『서경』이 「문후지명」 이후로 단절된 것은, 천하에 더 이상 고명(誥命)이 없었기 때문이며, 『춘추』가 「은공」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천하에 더 이상 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춘추존왕발미』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존왕”의 개념은 단일한 의미에 그치지 않고, 복합적 층위와 다층적 함의를 지닌 개념 체계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춘추』의 “미언대의”에 대한 손복의 깊은 통찰과 재해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직접적인 차원에서 손복이 말하는 “존왕”은 합법적 통치자에 대한 존숭, 즉 “존군(尊君)”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 구조 속에서 “왕”은 현실적 통치 권력을 상징하는데, 종주제(宗周制)에 서는 중앙의 왕인 주천자(周天子)를, 지방 제후국에서는 각국의 국군을 가리킨다. 『춘추』 시기 주 왕실의 권위가 점차 쇠미해지고

* 孫復, 『春秋尊王發微』, 「隱公」 원년: 孔子之作『春秋』也, 以天下無王而作也, 非為隱公而作也. 然則『春秋』之始於隱公者, 非他, 以平王之所終也. 何者, 昔者幽王遇禍, 平王東遷, 平既不王, 周道絕矣. 觀夫東遷之後, 周室微弱, 諸侯強大, 朝覲之禮不修, 貢賦之職不奉, 號令之無所束, 賞罰之無所加, 壞法易紀者有之, 變禮亂樂者有之, 弑君戕父者有之, 攘國竊號者有之. 征伐四出, 蕩然莫禁. 天下之政, 中國之事, 皆諸侯分裂之. 平王庸暗, 歷孝逾惠, 莫能中興, 播蕩陵遲, 逮隱而死. 夫生猶有可待也, 死則何所為哉. 故『詩』自『黍離』而降, 『書』自『文侯之命』而絕, 『春秋』自隱公而始也. 『詩』自『黍離』而降者, 天下無復有雅也. 『書』自『文侯之命』而絕者, 天下無復有誥命也. 『春秋』自隱公而始者, 天下無復有王也.

제후의 세력이 강대해지는 상황 속에서 손복은 제후라 할지라도 주천자의 정통적 위상을 존송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존주양이(尊周攘夷)”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러한 “존군”의 논리는 중앙집권과 정통 질서를 재구축하고자 했던 송대의 정치적 현실과 맞닿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존왕”은 무엇보다 정치적 정당성의 확립을 의미하며, 이는 곧 천자의 존엄을 옹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손복이 『춘추』 경문에서 “참호(僭號)”, “찬정(擅征)” 등의 행위를 강력히 비판한 것도 바로 이러한 정치적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보다 심층적인 차원에서 손복의 “존왕”은 구체적인 군주의 권위를 존송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가(儒家)가 이상으로 제시한 “왕도(王道)”를 존중하는 사유, 곧 “존왕도(尊王道)” 또는 “존왕법(尊王法)”를 의미하고 있다. 그는 『춘추』는 비록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경전이지만 공자(孔子)가 왕법(王法)을 문필에 담아 포폄(褒貶)한 정치적 경서로 이해되며, 그 목적은 종통(宗統)을 보존하고 민심을 바로잡는 데에 있다고 여겼다. 여기서 말하는 “왕법”이란, 삼대(三代)의 성세(盛世)를 모범으로 삼는 예악(禮樂) 제도와 인정(仁政)의 이상을 의미하며, 이는 곧 성왕(聖王)의 정치가 구현해내는 이상적 질서를 가리킨다. 따라서 “존왕”은 단지 현실 군주의 지위를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이상적 정치를 존송하는 행위이며, 예법 질서에 대한 회귀와 긍정을 의미한다. 손복은 “평왕은 더 이상 왕으로서의 권위를 행사하지 못하였고, 이로써 주나라(周)의 도는 단절되었다.”고* 탄식하며, 왕도적 정치 실현의 부재

* 孫復, 『春秋尊王發微』, 「隱公」 원년.

에 비판의 초점을 두었다. 그가 말한 “불왕(不王)”이란 곧 왕도 정치 이상을 구현하지 못한 상태를 뜻하며, 그 결과는 곧 기강의 문란과 천하의 무질서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손복은 “존군(尊君)”과 “존왕도(尊王道)” 사이의 긴장 관계 속에서 “존군”과 “책군(責君)”을 병행하는 사유 논리를 제시하였다. 그는 한편으로 군주의 권위와 정치적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존군”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군주의 실덕(失德)과 실정(失政)에 대해 직언을 아끼지 않았으며, 엄격한 비판을 가하였다. 이는 왕도(王道)를 수호하기 위한 견제 장치로 작동한다. 실제로 『춘추존왕발미』에는 군주의 행위를 비판하고 왕도에 어긋나는 사례를 지적한 구절이 다수 등장하며, 이를 통해 군권에 대한 규범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손복은 군주를 맹목적으로 신격화하지 않고, 오히려 “왕도”라는 보다 높은 가치 체계 속에서 군주의 존재를 성찰하며, “존중하되 책망할 수 있는[尊而能責]” 제약 구조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유 방식은 “존왕” 개념에 대한 그의 이중적 이해를 보여준다. 즉, 통치 질서를 긍정함과 동시에 통치 이상을 요구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만일 성왕(聖王)이 일어나고 백도(百道)가 바로잡히며 만물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구주(九州) 사해(四海)의 백성들이 여러 번역을 거쳐 자식을 업고 스스로 찾아올 것이다. 그리되면 법도를 넘고, 제멋대로 칭호하며, 함부로 정벌하고 사사로이 맹약하는 일이 어찌 다시 있겠는가? 이것이야말로 공자(孔子)의 깊은 뜻이다.”*고 하였다. 이로부

* 孫復, 『春秋尊王發微』, 「哀公」13년: 鄉使聖王興, 百度修, 萬物遂, 則九州四海皆將重譯, 纒負其子而至矣. 又安有奔軼 狂僭 肆誅伐 專盟會之事哉, 此孔子之深旨也.

더 보건대, 『춘추존왕발미』는 표면적으로는 “존군”의 의미를 드러내는 텍스트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책군”을 포함한 비판적 관점을 통해 “왕도” 그 자체의 구현을 지향하는 저술이라 할 수 있다. 손복은 이를 곧 공자의 “깊은 뜻이다.[深旨]”라 보았다.

손복에 따르면 춘추 시대의 ‘예붕악괴(禮崩樂壞)’와 강상 혼란의 근본 원인은 ‘천하무왕(天下無王)’, 즉 중앙 왕권의 붕괴와 정치 질서의 해체에 있었다. 따라서 그는 『춘추』의 해석 전반에서 군주 권위의 수호를 강조하였고, 군주의 안정성과 존엄을 왕도 정치 실현의 전제로 보았다. 『춘추존왕발미』에서 ‘천자에 대한 존숭’, ‘왕명에 대한 존숭’, ‘주례와 왕제에 대한 존숭’이라는 삼중 구조를 구축하고 명분·명령·제도 차원에서 군주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시도한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1. 천자(天子)에 대한 존숭

‘천자에 대한 존숭’은 군주가 국가 위계 구조에서 지닌 최고 지위의 불가침성을 의미한다. 여기서 천자란 주왕, 즉 주천자를 가리킨다. 손복의 『춘추존왕발미』에서 ‘존왕’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주천자의 정치적 최고 위상을 옹호하는 데 있으며, 이는 그의 『춘추』 해석 체계의 출발점이자 핵심 명제로 볼 수 있다. 춘추 시대는 제후들이 각축하고 왕권이 약화되었던 시기였지만, 유가의 전통 정치관에서는 주왕이 여전히 천명을 받은 공통의 군주로서 ‘사해를 소유한 자’로 간주되었고, 그 지위는 흔들

릴 수 없는 것이었다. 이에 손복은 공자가 『춘추』를 지은 이유가 바로 ‘주도(周道)의 단절’과 왕도의 붕괴를 안타까워한 데 있으며, 경문 속 필삭을 통해 포폄과 존비, 법도를 담아내고자 했다고 보았다. 그 궁극적 목적은 ‘존왕정통(尊王正統)’에 있으며, 천자를 다시금 천하의 공주(共主)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정치적·도덕적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손복은 『춘추존왕발미』에서 『춘추』 경문에 대한 세밀한 고찰을 통해, 공자(孔子)의 필삭(筆削)에 담긴 의미를 자구(字句)의 미묘한 차이 속에서 분별하고자 하였는데, 그 속에는 천자를 존숭하고 왕제를 수호하고자 하는 깊은 뜻이 곳곳에 담겨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춘추』, 「회공」 30년에서 말하였다. “겨울에 천왕(天王)이 재주공(宰周公)을 보내어 와서 빙문하였다. 공자수(公子遂)가 경사(京師)로 갔다가 드디어 진(晉)나라로 갔다.”*
- 『춘추존왕발미』, 「회공」 30년에서 말하였다. “모두 예에 어긋나는 일이다. 천자는 지존한 존재로, 제후가 감히 대등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회공(僖公)과 양왕(襄王)이 서로 사신을 주고받은 것은, 대등함 중에서도 가장 심한 경우였다. 그러므로 경문에 이르기를 “천왕이 재주공을 보내어 와서 빙문하였다. 공자수가 경사로 갔다가 드디어 진나라로 갔다.”고 하여 이를 나쁘게 여긴 것이다.”**

* 『春秋』, 「僖公」 30년: [經]冬, 天王使宰周公來聘. 公子遂如京師, 遂如晉.

** 孫復, 『春秋尊王發微』, 「僖公」 30년: 皆非禮也. 天子至尊, 非諸侯可得伉也. 僖與襄王交聘, 伉孰

해당 경문은 표면적으로는 주천자가 사신을 노나라에 보내고, 노나라가 공자를 경사로 회답 보낸 뒤 다시 진나라로 간 외교 행위를 기록한 듯하지만, 손복은 그 속에서 중대한 예제 위반과 정치 질서의 전복을 간파하였다. 그는 노나라 회공이 주천자와 ‘교빙(交聘)’한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고대 중법 예제에서 천자는 공주(共主)요, 제후는 신하로서, “천자지존(天子至尊)”의 원칙 아래 제후는 감히 ‘분정항례(分庭伉禮)’, 즉 동등한 외교 예절을 행할 수 없었다. 그러나 노나라 회공은 천자에게 회빙(回聘)하고, 이어 진나라까지 방문함으로써, 천자를 타국과 같은 수준으로 대우하였다. 손복은 『춘추』가 “천왕이 재주공을 보내어 와서 방문하였다.”고 먼저 쓰고, 이어 “공자수가 경사로 갔다가 드디어 진나라로 갔다.”고 적은 것은 공자가 필삭(筆削)을 통해 이를 폄하와 비판한 것이라 보았다. 마지막의 “이악지(以惡之)”라는 표현은 그러한 비판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는 구절로, ‘포폄이 필묵 사이에 담긴다.’고 주장한 손복의 대표적 해석 사례다. 이러한 해석은 손복의 ‘존왕’ 사상이 정치적 위계 질서와 예제 명분의 수호를 핵심으로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그는 주왕실이 춘추 시대에 권세는 약해졌더라도, 명분상으로는 여전히 천하의 공주로서 존송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제후가 왕명을 따르지 않거나 신하의 본분을 어기는 것은 모두 ‘대악(大惡)’이며, 『춘추』의 ‘존왕’ 정신은 이러한 사례를 기록하고 논평함으로써 군신의 명분을 세우고 정치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다고 본 것이다.

甚焉。故曰天王使宰周公來聘。公子遂如京師，遂如晉以惡之。

- 『춘추』, 「성공」 원년에서 말하였다. “가을에 왕사(王師)가 모용(茅戎)에게 대패하였다.”*
- 『춘추존왕발미』, 「성공」 원년에서 말하였다. “이는 왕사가 모용(茅戎)과 싸우다 패한 사건이다. 경문에서 “왕사가 모용에게 대패하였다.”고 말한 것은, 왕자는 지존하여 천하에 적수가 없어야 하며, 모용 따위가 감히 이를 이길 수 없다는 뜻이다. 정왕(定王)은 어리석고 우매하여 선왕(宣王)의 위엄을 잊지 못하였고, 그 결과 왕사가 모용에게 패한 것이니, 이는 지극한 악으로 간주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는 왕사가 스스로 패했다는 식으로 기록함으로써, 이를 비판하고 주(周)를 보존하고자 한 것이다.”**

손복은 「성공」 원년의 사건에 대한 논평을 통해 핵심적인 관점을 분명히 제시하였다. 즉, “왕자는 지존하므로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이다. 유가의 명분 질서 체계에서 천자는 하늘로부터 명을 받은 최고 권위자이며, 그가 거느리는 왕사는 단순한 무력이 아니라 도통(道統)과 왕도(王道)의 상징이다. 따라서 왕사의 패배는 단순한 군사적 실패가 아니라, 왕도 존엄에 대한 현실적 모욕으로 간주된다. 손복은 공자가 이를 필법으로 드러냄으로써 주나라 왕실의 무능과 위신 상실을 비판한 것이라 보고, 이를 ‘악(惡)’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마지막에

* 『春秋』, 「成公」 원년: [經]秋, 王師敗績于茅戎.

** 孫復, 『春秋尊王發微』, 「成公」 원년: 此王師及茅戎戰, 王師敗績也. 經言王師敗績於茅戎者, 王者至尊, 天下莫得而敵, 非茅戎可得敗也. 定王庸暗, 無宣王之烈, 王師為茅戎所敗, 惡之大者, 故孔子以王師自敗為文, 所以存周也.

“그러므로 공자가 왕사가 스스로 패했다고 기록한 것은 주나라를 보존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힌 점이다. 이 구절은 『춘추』 서술 방식의 유교적 의미를 나타낸다. 비록 왕사가 패했더라도, 공자는 “모용이 왕사를 이겼다.”고 직설하지 않고 “왕사가 모용에게 대패했다.”고 써서, 완곡한 필법을 통해 천자의 체면을 지키고 왕도의 명분을 보존하고자 한 것이다.

이로써 알 수 있듯이, 손복의 이 경문에 대한 해석에서 나타나는 ‘존왕’ 사상은 두 가지 층위에서 구체화된다. 첫째, 천자는 지존한 존재로 모욕받을 수 없고, 왕사는 함부로 패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왕사는 왕권의 상징으로, 그 패배는 예제(禮制)와 도통(道統)의 큰 손실이 된다. 『춘추』가 “왕사 패적(敗績)”이라 자책적으로 서술한 것은 왕실의 실정을 완곡히 비판하면서도 그 존엄을 지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둘째, 『춘추』의 문장은 ‘존주(尊周)’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현실에서 왕실이 쇠미하고 왕명이 통하지 않더라도, 공자는 ‘완곡한 필법으로 주나라를 옹호함[曲筆護周]’의 방식으로 왕도를 상징적으로 유지하고자 했다. 이러한 서술 방식과 의도는 손복이 높이 평가한 ‘존왕’ 사상이 『춘추』 속에 구현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 『춘추』, 「희공」 24년에서 말하였다. “겨울에 천왕(天王)이 정(鄭)나라로 가서 거처하였다.”*

○ 『춘추존왕발미』, 「희공」 24년에서 말하였다. “주나라 양왕(周襄

* 『春秋』, 「僖公」 24年: [經]冬, 天王出居于鄭.

王)을 말한 것이다. 주나라에는 ‘출(出)’이라 할 만한 일이 없는데, 여기서 ‘출’이라 한 것은 양왕이 스스로 주나라와 단절했음을 나쁘게 여긴 것이니, 이는 ‘도망[奔]’한 것이다. 또 ‘정나라로 가서 거처하였다.’고 한 것은, 천자는 지존하므로 그 도착한 곳을 ‘거처한다’고 칭하며, 제후와는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춘추』의 원문은 “천왕이 정나라로 가서 거처하였다.”로, 주나라 양왕이 정쟁을 피해 경사를 떠나 정나라에 거처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통상 『춘추』의 서법에서는 제후가 정변이나 전란으로 인해 본국을 떠나 타국에 의탁하는 경우 “분(奔)”자를 써서, 지위를 잃고 정치 질서가 무너졌음을 드러낸다. 예컨대 “모군이 초나라로 도망하였다.[某君奔楚]”, “모군이 제나라로 도망하였다.[某君奔齊]”와 같은 표현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출거(出居)”라는 표현을 쓴 점이 특이하다. 이에 대해 손복은 ‘출(出)’은 본래 천자에게 써서는 안 되는 말이라 지적한다. 이는 “천하는 곧 주나라 왕의 천하”이므로, 천자는 물리적으로 ‘나간다’거나 ‘떠난다’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이라 표현한 것은, 주나라 양왕이 스스로 주나라의 도통에서 벗어나 정통적 군주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것에 대한 비판이 담긴 것으로 본다. 공자는 이에 대해 글로써 비판의 뜻을 내포한 것인데, 이는 『춘추』 특유의 필법에 따른 ‘서이책지(書而責之)’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 孫復, 『春秋尊王發微』, 「信公」24년: 襄王也, 周無出, 此言出者, 惡襄王自絕於周, 則奔也. 其言居於鄭者, 天子至尊, 故所至稱居, 與諸侯異也.

그러나 『춘추』는 이에 대해 ‘분(奔)’이라 기록하지 않고, ‘거(居)’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해 손복은 비록 비판의 의미가 담겨 있기는 하지만 “천자는 존귀한 존재이므로 그가 이른 곳을 ‘거(居)’라 칭하는 것”이라 하여, 공자는 끝까지 주나라 왕의 존엄을 수호하고자 하였으며, 그를 제후와 같은 반열로 격하시키지 않으려 했다고 해석하였다. ‘거’ 자의 이와 같은 사용은 공자의 필삭(筆削)에 담긴 깊은 의미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곧 주나라 양왕의 행위를 부정하면서도 천자의 예제(禮製)적 지위를 훼손시키지 않고, “그 사람을 비판하되 그 존위를 모욕하지 않는다.[譏其人而不辱其尊]”라는 미묘한 균형을 구현한 것이다. 손복은 춘추전국의 난세 속에서 비록 왕도(王道)의 끈이 풀어지고 제후들이 각축을 벌이며, 주천자의 실질적 권위는 이미 쇠미해졌다고 하더라도 명분만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예(禮)로써 그를 존송해야 한다고 보았다. 군주를 존송함은 곧 주나라(周)를 존송하는 것이며, 주나라를 존송함은 곧 왕(王)을 존송하는 것이고, 왕을 존송함은 유가(儒家)가 추구하는 왕도정통(王道正統)을 수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그는 공자가 『춘추』를 지은 근본 의도는 “존왕양이(尊王攘夷)”에 있으며, 그 첫 번째 과제는 천자의 명분을 바로세우고 왕제(王制)의 근본을 공고히 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 춘추, 「희공」 28년에서 말하였다. “천왕(天王)이 하양(河陽)에서 사냥하였다.”*

* 『春秋』, 「僖公」 28년: [經]天王狩于河陽.

○ 『춘추존왕발미』, 「희공」 28년에서 말하였다. “천왕이 ‘하양에서 사냥하였다.’고 말한 것은, 진나라 문공(晉文公)이 다시 천자를 도성으로 모셔온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 진나라 문공이 천자를 재차 도움으로 맞이한 행위는 그 패업(霸業) 중에서도 가장 큰 죄악으로 간주되었기에, 공자는 이에 대해 주나라 양왕이 스스로 사냥을 나갔다는 방식으로 기록하였다. 이는 제후를 폄하하고 천자를 높이려는 강한 뜻을 담은 것이다.”*

경문에 기록된 “천왕이 하양에서 사냥하였다.”는 언뜻 보기에는 단순한 왕의 유람(觀光)처럼 보인다. 그러나 손복은 이 표현 속에 정치적 풍자와 시비의 뜻이 담겨 있음을 간파하였다. 그는 이것이 실제로 천자의 예제(禮祭) 사냥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진문공(晉文公)이 군신의 예를 범하고, 천자가 덕과 권위를 상실한 현실을 ‘수(狩)’자를 통해 풍자한 것이라 보았다. 손복의 『춘추존왕발미』에서 말하는 “재치천자(再致天子)”란, 진문공이 두 차례에 걸쳐 제후의 신분으로 천자를 하양으로 불러들인 사건을 가리킨다. 주나라 양왕은 이에 굴종하여 진나라로 나아갔는데, 손복은 이를 “악지대자(惡之大者)”로 규정하였다. 이는 예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강한 제후가 군주를 능멸하는 정치적 참람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이다. 공자는 『춘추』에서 “진후가 왕을 부르다.[晉侯召王]”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천왕이 수렵하다.[天王狩]”고 우회적으

* 孫復, 『春秋尊王發微』, 「僖公」 28年: 經言公及齊侯、宋公、陳侯、衛侯、鄭伯、許男、曹伯會王世子於首止者, 不與桓致王世子與諸侯其列也。故先言公及諸侯, 而後言會王世子以尊之, 尊王世子所以重桓之惡也。

로 서술함으로써, 표면상은 회피하되 실제로는 비판의 뜻을 담았다. 손복은 이를 강한 제후를 꺾어하고 천자의 위엄을 높이려는 필법, 즉 “출강후이존천자(黜強侯而尊天子)”로 해석하였다. 이처럼 『춘추』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수(狩)’라는 표현으로 진문공의 불공(不恭)을 폭로하고, 주왕의 실권을 부각시키며, 군주를 비호하기보다 강신을 풍자한다. 손복의 ‘존왕’ 사상은 이러한 예를 통해 천자의 지위는 결코 침해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그는 미묘한 어휘 해석을 통해 경문·사실·의리의 삼위일체적 해석 체계를 구축하였는데, 그 속에서 ‘존왕’은 단순한 권위의 수호가 아니라 도의 질서를 재건하는 핵심 원리로 작용하였다.

- 『춘추』, 「회공」 5년에서 말하였다. “회공(僖公)이 제후(齊侯)·송공(宋公)·진후(陳侯)·위후(衛侯)·정백(鄭伯)·허남(許男)·조백(曹伯)과 함께 수지(首止)에서 왕세자(王世子)를 회견하였다.”*
- 『춘추존왕발미』, 「회공」 5년에서 말하였다. “경문에 ‘회공이 제후·송공·진후·위후·정백·허남·조백과 함께 수지에서 왕세자를 회견하였다.’고 한 것은, 환공(桓公)이 왕세자를 제후의 반열에 끼워 회합하게 한 사실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먼저 공과 제후들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왕세자와의 회합을 말한 것은 왕세자를 존중하기 위함이다. 왕세자를 존숭함은 곧 환공의 죄악을 중하게 평가하려는 의도이다.”**

* 『春秋』, 「僖公」 5年: 及齊侯・宋公・陳侯・衛侯・鄭伯・許男・曹伯・會王世子於首止.

** 孫復, 『春秋尊王發微』, 「僖公」 5年: 經言公及齊侯・宋公・陳侯・衛侯・鄭伯・許男・曹伯會王

「회공(僖公)」 5년, 제환공(齊桓公)은 수지(首止)에서 제후들과 회맹을 가졌고, 이 자리에 왕세자도 참석하였다. 이에 대해 손복은 『춘추』가 비록 제후들이 “왕세자와 회합하였다.”고 기록하였으나, 왕세자를 모든 제후 뒤에 위치시킨 점에 주목하였다. 이는 겉으로는 왕세자의 지위를 낮춘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어법적 서술로서, “존왕(尊王)이며 환공을 폄하(貶桓)”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손복은 공자(孔子)가 제환공이 왕세자를 회합에 불러낸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았으며, 더 나아가 왕세자를 제후들과 동렬에 두는 것 또한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본다. 『춘추』의 서술 관례상, 제후국이 회합할 경우 지위가 높은 자가 먼저 기록되어야 한다. 왕세자는 주천자의 후계자로서 마땅히 가장 높은 예우를 받아야 하는데, 그를 제후들과 같은 반열에 두는 것만으로도 이미 불경이며, 제후들 뒤에 배치하는 것은 더욱 무례한 일이다. 따라서 그는 공자가 이를 기록할 때 의도적으로 “왕세자”를 제후들 다음에 언급함으로써 그 부당함을 풍자하고자 하였다. 손복은 이러한 문장 구조가 결코 왕세자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 지위의 실추를 강조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존송하려는 것이라 보았다. 즉, 문장의 배열을 통해 “존왕”의 의도를 실현한 것이다. 나아가 왕세자를 제후들 뒤에 위치시킨 것은 곧 “환공의 죄악을 중하게 평가함[重桓之惡]”이며, 이는 제환공이 왕명을 참람하게 침범하고, 왕세자를 제후들과 똑같이 대우한 데 대한 강한 경계와 비판을 의미한다. 이는 명백한 대역무도(大逆無道)의 행위로 간주

世子於首止者，不與桓致王世子與諸侯其列也。故先言公及諸侯，而後言會王世子以尊之，尊王世子所以重桓之惡也。

되었다.

요컨대 손복에 따르면, 천자는 단순한 국가 정치 구조상의 최고 군주가 아니라, 예법 제도와 도통 명분의 상징이자 중심축이다. 『춘추』가 주천자의 출사(出使), 회맹(會盟), 수렵(狩獵) 등의 사건을 반복적으로 기록한 것은, 공자(孔子)가 이를 통해 존비 질서의 붕괴와 제도 해체의 현실을 드러내고, 특정한 서술 방식을 통해 포폄의 뜻을 담아 “군존신비(君尊臣卑)”라는 기본 질서를 수호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손복은 경문 속 세밀한 표현들을 해석함으로써, “천자는 감히 대등할 수 없고, 왕명을 거슬러서는 안 되며, 왕사의 명예는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유가 경학의 핵심 입장을 확립하였다. 그는 현실적으로 왕권이 이미 쇠퇴하고 예악이 무너졌더라도, 명분의 정당성은 결코 폐기되어서는 안 되며, 천자의 존엄 역시 결코 격하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춘추』의 대의는 바로 여기에 있다. 난세의 현실을 기록함으로써 치세의 원칙을 밝히고, 서술 속 비판을 통해 법도를 드러내며, 미묘한 언어에 큰 뜻을 담아 주나라의 도를 보존하고 왕제(王制)의 정통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이러한 사유 체계 속에서 “존왕(尊王)”은 단지 경학적 의리의 근본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상과 제도적 규범의 기초를 이루는 핵심 개념이 된다. 따라서 본 절에서 논한 “천자에 대한 존숭”의 의미는 단순한 문장 속 풍자나 시비의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난세 속에서 공자가 『춘추』의 필삭을 통해 정통을 재천명하고, 왕법을 드날리며, 명분을 드높이고자 했던 정치적·유학적 사명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는 곧 손복의 춘추학에서 “존왕”의 입장을 이루는 기본 정신이라 할 수 있다.

2. 왕명(王命)에 대한 존송

『춘추』는 주왕(周王)의 조령(詔令), 임명(任命), 봉호(封號) 등을 가장 권위 있고 유일한 명령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주왕은 제후국의 제반 사안에 대해 최고 결정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주평왕(周平王)이 동천(東遷) 이후, 주왕실(周王室)은 쇠약해지고, 제후는 강대해졌다. 조곤(朝覲)의 예는 행해지지 않고, 공부(貢賦)의 직책은 이행되지 않았으며, 왕의 호령은 아무 구속력도 없고, 상벌은 아무에게도 미치지 않았다. 법도를 허물고 질서를 바꾸는 자가 있었고, 예악(禮樂)을 뒤흔드는 자가 있었으며, 임금을 시해하고 아비를 해치는 자가 있었고, 나라를 빼앗고 칭호를 도용하는 자도 있었다.”*처럼 점차 주왕의 권위는 점차 쇠약하게 되었다. 손복은 춘추 시기의 제후국 대부들이 천자의 정식 임명을 받지 않고 자의적으로 세습한 행위에 대해 왕명을 능멸한 것으로 여겼다. 이에 『춘추』는 “대부라 칭하지 않음[不稱大夫]”이라는 서법으로 그들을 풍자하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손복은 공자가 『춘추』를 지은 목적이 ‘주란(誅亂)’이며, 제후의 불법적 행위를 규탄함으로써 ‘왕명존송(王命尊崇)’을 주장한 것이라고 보았다. 『춘추존왕발미』의 전반을 살펴보면, 그는 ‘왕명존송’ 사상을 다음 몇 가지 측면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춘추』는 ‘세록(世祿)을 악으로 여김[惡世祿]’으로써 천

* 孫復, 『春秋尊王發微』, 「隱公」 원년: 東遷之後, 周室微弱, 諸侯強大. 朝覲之禮不修, 貢賦之職不奉, 號令之無所束, 賞罰之無所加. 壞法易紀者有之, 變禮亂樂者有之, 弑君戕父者有之, 攘國竊號者有之.

자의 지방 관료 임명권을 옹호하였다. 손복은 특히 ‘천자의 대부 임명(天子命大夫)’이 합법적인 기준임을 강조하였다. 이 사상은 『은공』 원년 ‘공자 익사(益師)가 졸하였다.’에 대한 해석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제후국의 대부는 모두 천자의 명을 받아야 합법적인 관료로 인정된다. 그러나 춘추 시기에는 제후국 대부가 주왕의 허가 없이 자의적으로 세습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춘추』는 ‘존왕(尊王)’을 위해 ‘세록을 악으로 여겼던 것’이다. 『춘추』의 ‘악세록(惡世祿)’은 곧 대부의 세습 제도를 반대한 것으로, 이는 천자의 지방 관료 임명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 『춘추』, 「은공」 원년에서 말하였다. “공자 익사가 졸하였다.”*
- 『춘추존왕발미』, 「은공」 원년에서 말하였다. “익사(益師)는 효공(孝公)의 아들이며, 노나라의 내대부(內大夫)였다. 내대부가 사망하면, 모두 ‘공자(公子)’, ‘공손(公孫)’, 또는 성씨로만 기록하고, ‘대부(大夫)’라 부르지 않았다. 이는 세록(世祿)을 악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고대에는 제후국의 대부가 모두 천자의 명을 받아 임명되었다. 그러나 주실(周室)이 이미 쇠미해지자, 그 제도도 결국 폐지되었다. 노나라의 장씨(臧氏), 중손씨(仲孫氏), 숙손씨(叔孫氏), 계손씨(季孫氏) 등은 모두 대대로 정사를 장악하였으며, 천자의 명을 받은 자는 없었다. 이는 곧 세록이라 할 만하다. 『춘추』는 ‘내를 자세히 기록하고 외를 간략히 한다(詳內

* 『春秋』, 「隱公」 원년: [經]公子益師卒.

略外)’는 서술 원칙을 따르므로, 특별히 내대부의 사망을 기록하여 그 폐단을 질책한 것이다.”*

손복은 『춘추』에서 ‘익사(益師)’가 노나라의 내대부(內大夫)였음에도 사망할 때 ‘대부(大夫)’라 칭하지 않고, ‘공자익사(公子益師)’라 기록한 점에 주목하였다. 이는 곧 “대부라 칭하지 않은 것”이다. 손복은 그 이유를 “세록을 악으로 여긴 것(惡世祿也)”이라 해석하였다. 그는 고제(古制)가 무너지기 전에는 제후국의 대부가 반드시 천자의 명을 받아야만 그 직책이 합법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그러나 주실(周室)이 동천한 이후로 왕명의 효력이 약해지고, 지방은 각자 할거하며, 대부의 지위는 대부분 가문에 의해 세습되었다. “모두 대대로 정사를 잡고, 천자의 명을 받은 자가 없다.(皆世執其政, 莫有命于天子者)”는 상황이 곧 ‘세록’의 폐단이다. 따라서 손복은 『춘추』가 “대부라 칭하지 않는” 서술 방식을 통해 왕명을 받지 않은 자를 풍자하고, ‘내는 자세히 기록하고 외는 간략히 한다.(詳內略外)’는 서법으로 처리하여 ‘왕명(王命)’에 대한 존중을 부각시켰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단순한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가치 판단의 표현이며, 서법의 차이를 통해 제도의 정당성을 암시하고, ‘존왕(尊王)’의 뜻을 드러낸 것이다.

둘째, 『춘추』는 ‘비자시(非自諡)’로써 제후에 대한 천자의 시호(諡號) 부여 권한을 옹호하였다. 시호는 예제(禮制)의 중요한 구

* 孫復, 『春秋尊王發微』, 「隱公」 원년: 益師, 孝公子, 內大夫也. 內大夫死, 皆曰公子’ 公孫與氏. 不以大夫目之者, 惡世祿也. 古者, 諸侯之大夫皆命於天子. 周室既微, 其製遂廢. 魯之臧氏’ 仲孫氏’ 叔孫氏’ 季孫氏 (….) 皆世執其政, 莫有命於天子者, 此可謂世祿者矣. 『春秋』詳內略外, 故獨卒內大夫以疾之.

성 요소이며, 그 수여 권한은 오직 천자에게만 있었다.

○『춘추』, 「은공」 3년에서 말하였다. “계미에 송목공(宋穆公)을 장사지냈다.”*

○『춘추존왕발미』, 「은공」 3년에서 말하였다. “예에 따르면, 천자가 붕어하면 천명을 청하여 시호를 올리고, 제후가 죽으면 천자에게 시호를 청하며, 대부가 졸하면 그 군주에게서 시호를 받는다. 큰 공은 큰 시호를 받고, 작은 공은 작은 시호를 받는다. 이는 악을 징계하고 선을 권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주평왕이 동천(東遷)한 이후, 이러한 예제는 폐지되었다. 제후가 장례를 치를 때, 천자에게 시호를 청하지 않고 모두 자의적으로 시호를 정하였다. 단지 천자에게 시호를 청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공(公)’이라 칭하는 참호(僭號)의 사례도 있었다. 이에 공자는 이를 기록함으로써 왕법(王法)을 바로잡고자 하였다.”**

손복은 주례(周禮)를 찾아보면 시호(諡號)의 부여 과정에는 명확한 등급과 절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하였다. 즉, 천자가 붕어하면 천명에 따라 시호를 정하고, 제후가 죽으면 천자에게 시호를 청하며, 대부가 졸하면 그 군주가 시호를 내린다. 이러한 예제는 천자가 천하의 공주로서 봉건 질서 내에 최고의 권위를 가지며, 윤리와 정치의 궁극적 재판자임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시법

* 『春秋』, 「隱公」 3년: [經]癸未, 葬宋穆公.

** 孫復, 『春秋尊王發微』, 「隱公」 3년: 禮, 天子崩, 稱天命以諡之. 諸侯薨, 請諡於天子. 大夫卒, 受諡於其君. 大行受大名, 小行受小名, 所以懲惡而勸善也. 東遷之後, 其禮遂廢. 諸侯之薨也, 不請諡於天子, 皆自諡之. 非獨不請諡於天子, 皆自諡之, 而又僭稱公焉. 故孔子從而錄之, 正以王法.

(諡法)은 단순한 장례 절차가 아니라, 정치적 상징이기도 하다. 그것은 신하의 생전 공과를 판단할 합법적 권한이 왕자(王者)에게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주(東周) 이후 왕실은 쇠약해지고, 제후는 강성해졌다. 이에 제후는 더이상 왕명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여 시호를 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예제를 훼손한 것일 뿐만 아니라, 천자의 권위를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또한 공(公)이라 참칭하였다.(又僭稱公焉)”는 점이다. 이는 단지 시호만 자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작위의 호칭에서도 참월(僭越)의 의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명백히 등급 질서와 왕명 법도를 어긴 예제 파괴의 행위이다. 손복은 공자가 『춘추』에 “송목공(宋穆公)의 장례를 기록한 것”은 바로 ‘비정상의 일을 기록하여 정상의 법을 밝힌다.(記非常以示法常)’는 서술 방식으로, ‘왕법을 바로 세우고자 한 것(正以王法)’이라고 해석하였다. 이는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법의 존엄을 드러내는 정치적 의도의 표현이다. 이러한 서술은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역사적 행위에 대해 평가와 비판을 담는 문체이다. 『춘추』는 이러한 미연대의를 통해 한 사람, 한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당시 정치 질서에 대한 가치 판단을 담아낸다. 당연히 그 이면에는 왕명(王命)의 존엄을 회복하고, 예제와 강상(綱常)을 바로잡고자 하는 의도가 자리하고 있다.

셋째, 『춘추』는 ‘왕명의 아님에는 전집하지 못함(非王命不得專執)’을 통해 제후가 동등한 제후에 대해 함부로 간섭하는 권한을 제한하였다. 손복은 비록 오등(五等) 제후 간에 품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왕명의 명령에 따라 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춘

추의 난세에는 제후가 강성해지며, 왕명 없이 자의적으로 죄를 정하고 인물을 구금하는 일이 빈번하였다. 이는 명백한 참월(僭越) 행위이다.

○『춘추』, 「회공」 5년에서 말하였다. “거울에 진인(晉人)이 우공(虞公)을 잡았다.”*

○『춘추존왕발미』, 「회공」 5년에서 말하였다. “사람이라 칭하여 잡은 것(稱人以執)’은 진후(晉侯)를 비난한 것이다. 오등(五等)의 제도는 비록 각국의 궁실·수레·깃발·복식·예의에 차이가 있더라도, 모두 천자의 명을 받아 남면하고 고(孤)라 칭하니, 모두 제후에 해당한다. 그중 죄가 있는 자는 방백(方伯)이 천자에게 칭하여 명을 받아서야 잡을 수 있으며, 자의적으로 잡을 수는 없다. 죄가 있어도 임의로 잡을 수 없는데, 하물며 죄가 없는 자야 말할 것도 없다. 춘추 시대에는 제후가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오직 힘에 의지하여, 서로 잡을 수만 있으면 잡고, 더 이상 천자에게 칭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공자께서 이를 기록하여 왕법(王法)을 바로잡고자 하신 것이다. 때로는 ‘후(侯)’라 칭하여 그 죄악을 드러내고, 때로는 ‘인(人)’이라 칭하여 그 작위를 박탈하였다. ‘후라 칭하여 죄를 드러낸 것’은 왕명의 없이 잡긴 하였으나, 죄가 있었기에 그 벌이 가볍고, 다만 자의적으로 잡은 죄만을 드러낸 것이다. 예를 들어, 「회공」 28년 ‘진후(晉侯)가 조(曹)나라로 쳐들어가서 조백(曹伯)을 잡고, 조(曹)나라의

* 『春秋』, 「僖公」 5년: [經]冬, 晉人執虞公.

땅을 송인(宋人)에게 주었다.*, 「성공」 15년 ‘진후(晉侯)가 조백(曹伯)을 잡아 경사(京師)로 보냈다.**와 같은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인이라 칭하여 작위를 박탈한 것’은 왕명의 없이 잡았을 뿐만 아니라 죄도 성립되지 않는 경우로, 그 벌이 무겁기 때문에 작위까지 박탈한 것이다. 예를 들어, 희공 해당 연도 ‘진나라 사람이 우공을 잡았다.(晉人執虞公)’, 「희공」 19년 ‘송나라 사람이 등자 영제(嬰齊)를 잡았’*** 등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손복은 『춘추』에서 ‘진인(晉人)’이라 기록하고 ‘진후(晉侯)’라 하지 않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선택은 공자가 진후의 전횡 행위를 엄중히 비판하고자 했던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오등 작위 체계에서 제후는 각국의 예제·차복(車服) 제도 등에서 차등을 두었지만, 모두 천자의 책명을 받아 합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존재였다. 그러므로 한 나라 제후를 억류하고 형벌을 집행하는 일은 반드시 왕명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른바 “죄가 있을 경우, 방백(方伯)이 천자에게 청하고, 명이 있을 후에야 집행할 수 있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춘추 시기에는 주왕실이 쇠약해지고 왕명이 시행되지 않았으며, 제후는 강성해져 모두가 제멋대로 행동하였다. 이들은 왕명 없이 자의적으로 죄를 논하고 처벌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오직 힘에 의지하는(唯力是

* 『春秋』, 「僖公」 28년: [經]三月丙午, 晉侯入曹, 執曹伯畀宋人.

** 『春秋』, 「成公」 15년: [經]晉侯執曹伯, 歸于京師.

*** 『春秋』, 「僖公」 19년: [經]十有九年春王三月, 宋人執滕子嬰齊.

**** 孫復, 『春秋尊王發微』, 「僖公」 5년:

恃)’ 정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진후(晉侯)는 왕명의 명령 없이 자의적으로 우공(虞公)을 억류한 것은 이미 예를 어기고 법을 위반한 행위였다. 그렇다면 『춘추』는 왜 그를 ‘진후’가 아닌 ‘진인(晉人)’이라 기록하였는가? 이에 대해 손복은 『춘추』에서 ‘후(侯)’와 ‘인(人)’의 칭호 선택에 내포된 비판 의도를 더욱 정밀하게 분석하였다. 즉, 비록 왕명의 없이 인물을 억류하였으나 피억류자가 실제로 죄가 있는 경우에는 ‘후’라 칭하여, 그 행위가 예를 벗어났으나 전혀 이치에 어긋난 것은 아님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만약 왕명도 없고 죄책도 명확하지 않다면, 그 죄는 한층 더 무거우며, 이때는 ‘인’이라 칭하여 작위를 강등시키고, 전횡에 대한 비판을 나타내는 것이다. 『춘추존왕 발미』는 이 점을 「회공」 28년 “진후가 조나라로 쳐들어가서 조백을 잡고, 조나라의 땅을 송나라 사람에게 주었다.”와 「성공」 15년 “진후가 조백을 잡아 경사로 보냈다.”를 ‘후라 칭하여 그 악을 드러낸 사례’*로 제시하였다. 반면, ‘진인이 우공을 억류한 것’은 ‘인을 칭하여 작위를 박탈한 것’**에 해당하며, 더욱 엄중한 비판이 담겨 있다. 이러한 서술은 국가의 대정(大政)은 반드시 천자가 총괄해야 하며, 제후가 자의적으로 처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

* 孫復, 『春秋尊王發微』, 「僖公」 6年: 或則稱侯以著其惡, 或則稱人以奪其爵. 稱侯以著其惡者, 謂雖非王命執, 得其罪, 其罰輕. 故但著其專執之惡. 二十八年, 晉侯入曹, 執曹伯畀宋人. 成十五年, 晉侯執曹伯, 歸于京師, 之類是也. 혹은 ‘후(侯)’라 칭하여 그 죄악을 드러내고, 혹은 ‘인(人)’이라 칭하여 작위를 박탈하였다. ‘후라 칭하여 그 죄를 드러낸 경우’란, 비록 왕명의 없이 억류하였으나 죄가 있었기에 그 벌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단지 전횡의 잘못만을 드러낸 것이다. 예를 들어, 「회공」 28년 “진후가 조나라로 쳐들어가서 조백을 잡고, 조나라의 땅을 송인에게 주었음”과, 「성공」 15년 “진후가 조백을 잡아 경사로 보냈음”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앞의 119쪽 각주 ****참조.

한 것이다. 이는 손복이 경학(經學)의 언어를 빌려 중앙집권의 원칙을 옹호한 측면이기도 하다.

넷째, 『춘추』는 “천자가 아니면 함부로 죽일 수 없다.(非天子不得專殺)”는 예제 원칙을 강조하였다. 손복은 천자가 신분과 지위 면에서 최고의 존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나아가 예악(禮樂)과 정벌(征伐) 등 국가 대사의 최고 권한도 장악하고 독점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이는 왕도 정치의 실현과 왕실 질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손복에 따르면 『춘추』의 의법(義法) 가운데 “천자가 아니면 임의로 죽일 수 없다.”는 원칙은 가장 기본적인 예제 규범이다. 고레에 따르면 제후국의 대부분은 모두 천자의 명을 받아 임명되었고, 제후는 자의적으로 관원을 임명할 수 없으며, 더구나 임의로 죽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대부에게 죄가 있더라도 반드시 “천자에게 청하고(請于天子)” 천자의 재결을 받아야 한다.

○ 『춘추』, 「은공」 2년에서 말하였다. “정인(鄭人)이 위(衛)를 쳤다.”*

○ 『춘추존왕발미』, 「은공」 2년에서 말하였다. “공자(孔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천하에 도(道)가 있으면, 예악(禮樂)과 정벌(征伐)은 천자에게서 나온다. 천하에 도가 없으면, 예악과 정벌이 제후에게서 나온다. 예악과 정벌이 제후에게서 나오면, 십세(十世)가 지나도록 국가가 무너지지 않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

* 『春秋』, 「隱公」 2年: [經]鄭人伐衛.

에게서 나오면 오세(五世)를 지나기 어렵다.’ 예악과 정벌은 천하와 국가의 중대한 근본이며, 이는 반드시 천자가 주관해야 한다. 제후가 이를 진행(專行)하는 것도 원칙상 불가한데, 하물며 대부가 어찌 감히 자의로 행할 수 있겠는가. 나는 은공(隱公)과 환공(桓公)의 시기를 보건대, 제후는 작고 크기를 막론하고 모두 제멋대로 이를 행하였다. 선공(宣公)과 성공(成公) 이후에는 대부가 내정과 외교를 불문하고 모두 자의로 실행하였다. 이는 천하에 군주가 없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께서 이를 기록한 것은 왕법(王法)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다.”*

경문(經文) “정인이 위나라를 정벌하다.”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역사적 사실의 기록처럼 보인다. 그러나 손복은 그 이면에 담긴 경의(經義)를 깊이 파고들며, 『논어』의 구절을 인용하여 “예악정벌(禮樂征伐)”이 국가 정치의 근본적인 강상(綱常)임을 강조하였다.** 『춘추존왕발미』에서 언급한 “시지(尸之)”는 곧 ‘주관한다’는 의미로, 손복은 예제(禮制), 악화(樂化), 정벌(征伐) 등 치국(治國)의 근본 사무는 반드시 천자가 주재해야 하며, 제후나 대부가 자의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주장하였다. 손복이 이와 같은 기록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한 이유는 『춘추』의 미언대의에 대한

* 孫復, 『春秋尊王發微』, 「隱公」2년: 孔子曰, 天下有道, 則禮樂征伐自天子出. 天下無道, 則禮樂征伐自諸侯出. 自諸侯出, 蓋十世希不失矣. 自大夫出, 五世希不失矣. 夫禮樂征伐者, 天下國家之大經也. 天子尸之, 非諸侯可得專也. 諸侯專之, 猶曰不可, 況大夫乎. 吾觀隱桓之際, 諸侯無小大, 皆專而行之. 宣成而下, 大夫無內外, 皆專而行之. 其無王也, 甚矣. 故孔子從而錄之, 正以王法.

** 『論語』, 「季氏」16: 孔子曰, 天下有道則禮樂征伐自天子出, 天下無道則禮樂征伐自諸侯出.

곧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춘추 시대의 국가 권력이 점차 아래쪽으로 향하면서 “제후가 정치를 진행하고, 대부가 권력을 남용하는(諸侯專政, 大夫擅權)” 병리적 정치 구조가 이루어졌고, 이는 ‘무왕(無王)’ 상태를 심화시켰다고 여겼다. 손복의 견해에 따르면 『춘추』는 이러한 정치 혼란을 드러내고 비판하며, 서로 다른 서술 방식을 통해 시비를 나타내고자 하였는데, 바로 “기록함으로써 왕법을 바로잡는다.(從而錄之, 正以王法)”는 것이다. 이는 공자(孔子)가 『춘추』를 통해 드러낸 “존왕출패(尊王黜霸)”의 정치적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손복은 “예악과 정벌은 천자로부터 나온다.”*는 명제를 정치 이상과 현실 비판의 이론적 근거로 삼았다. 그것의 함의는 고사를 통해 당세를 풍자하는 데 있다. 그는 북송(北宋) 초기 인물로, 중앙 권력이 점차 강화되고 문관 체제가 확립되어 가던 역사적 전환기에 살았다. “예악과 정벌은 천자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은 춘추 시대 왕권 붕괴에 대한 반성임과 동시에 당시의 조정이 중앙 집권을 회복하고 문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상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그가 강조한 왕권의 전단(專斷)은 고경(古經)의 권위에 입각하여 동시대의 정치 현실에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했던 학문적 시도로 볼 수 있다.

○ 『춘추』, 「선공」 15년에서 말하였다. “왕찰자(王札子)가 소백(召伯)과 모백(毛伯)을 살해하였다.”**

* 『論語』, 「季氏」 16.

** 『春秋』, 「宣公」 15년: [經]王札子殺召伯毛伯.

○『춘추존왕발미』, 「선공」 15년에서 말하였다. “생살(生殺)의 권
한은 천자(天子)가 지니는 것이다. 그러므로 『춘추』는 ‘천자가
아니면 함부로 죽일 수 없다.(非天子不得專殺)’는 원칙을 따른
다. 왕찰자(王札子)는 신하의 신분이었다. 그런 왕찰자가 조정
에서 소백(召伯)과 모백(毛伯)을 죽였는데, 정왕(定王)은 이를
막지 못하였다. 이는 참람함이 극에 달한 사례였다. 그러므로
“왕찰자가 소백과 모백을 죽인 것”이라 기록한 것은 그의 악행
을 징벌하고자 함이었다.”*

손복은 『춘추』, 「선공(宣公)」 15년 “왕찰자가 소백과 모백을
살해하였다.”는 기록에 대한 해석을 통해, “생살의 대권은 오직
천자에게 속한다.”는 관념과 “신하의 전살(專殺)을 엄히 꾸짖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드러냈다. 손복은 천자만이 생살권을 소
유할 수 있고, 천자가 아닌 자가 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왕권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자 주례(周禮) 질서의 파괴라고 하였다. 『춘
추』의 모든 기사는 공자(孔子)가 미언(微言)의 방식으로 당시 정치
질서를 판단하고 재단한 것이다. “왕찰자가 소백과 모백을 죽였
다.”고 기록한 것도 바로 그러한 칭찬과 비난, 시비의 기준을 밝
히기 위한 것으로 그 악을 징벌한다는 의미에서 ‘주기악(誅其惡)’
이라 하였다. “왕찰자는 신하였다.”는 문구는 그가 왕도 아니고
제후도 아닌 단지 신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는 왕도

* 孫復, 『春秋尊王發微』, 「宣公」 15년: 生殺之柄, 天子所持也, 是故『春秋』非天子不得專殺. 王劄子, 人臣也. 王劄子人臣殺召伯 毛伯於朝, 定王不能禁, 專執甚焉. 故曰王劄子殺召伯 毛伯, 以誅其惡.

아니며, 제후 또한 아니었지만 자의로 소백과 모백 두 관료를 처형하였다. 이는 곧 ‘신하가 윗사람을 시해한 행위(人臣弑上)’에 해당하며, 예법상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중죄이다. 따라서 손복은 한편으로는 왕찰자의 극심한 참람을 강력히 비판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 천자의 정통 권위를 지키지 못한 주정왕(周定王)의 무능과 왕권 상실을 비판하였다. 이는 ‘무왕지세(無王之世)’에 대한 가장 날카롭고도 심층적인 경학적 질타였다.

- 『춘추』, 「장공」 22년에서 말하였다. “진(陳)나라 사람이 그의 공자인 어구(禦寇)를 죽였다.”*
- 『춘추존왕발미』, 「장공」 22년에서 말하였다. “『춘추』의 뜻은 ‘천자가 아니면 함부로 죽일 수 없다.’는 데 있다. 이 말은 진나라 사람이 그들의 공자 어구(御寇)를 죽인 일을 두고, 전살(專殺)을 비판한 것이다. 그러므로 242년간의 『춘추』 기록 가운데 천자가 대부를 죽인 예는 하나도 없고, 제후가 대부를 죽인 사례는 47건에 달한다. 어째서 그런가? 고대에는 제후국의 대부도 모두 천자의 명을 받아 임명되었으며, 제후는 자의로 관리를 임명할 수 없었다. 대부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도 반드시 천자에게 청해야 하며, 제후가 임의로 죽이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대부조차 자의로 죽일 수 없었는데, 하물며 세자나 공자의 이복형제와 같은 군자 신분의 인물을 어찌 자의로 처형할 수 있겠는가? 춘추 시대에는 나라의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모든 경(卿)·

* 『春秋』, 「莊公」 22年: 陳人殺其公子禦寇.

대부·사(士)들이 자의로 관직을 임명하였고, 죄가 있는 없는 임의로 사람을 죽였다. 이는 천하에 왕이 없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께서 이를 기록하신 것은 바로 그 악을 징벌하기 위함이었다.”*

손복은 『춘추』 「장공」 22년 “진(陳)나라 사람이 그의 공자인 어구(禦寇)를 죽였다.”는 기록에 대한 해석을 통해 “전살(專殺)을 반대하고 형벌권은 천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었다. 그는 이 해석을 바탕으로 주왕실이 최고의 정치·법률 권위를 가진 존재임을 수호하고자 하였다. 손복은 해당 조항에서 이상적인 주례(周禮) 질서에서는 오직 천자만이 생살(生殺)에 대한 최종 재결과 집행 권한을 가진다고 강조하였다. 제후와 대부는 임의로 형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기전살(譏專殺)”은 진나라가 예제를 넘어서 자의적으로 살인을 감행한 것을 냉정한 역사 서술의 문제로 비판한 것이다. 이는 천자의 존엄을 유지하려는 『춘추』의 법통적 의도를 잘 보여준다. 손복은 또한 통계에 근거하여 『춘추』 경문에는 천자가 대부를 죽인 기록이 전혀 없으며, 반면 제후가 대부를 죽인 사례는 47건에 달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서법(書法)의 차이를 통해 춘추 시대의 “예가 무너지고 음악이 폐한(禮崩樂壞)” 현실과 제후의 권한 남용을 폭로

* 孫復, 『春秋尊王發微』, 「莊公」 22년: 「春秋」之義, 非天子不得專殺. 此言陳人殺其公子禦寇者, 譏專殺也. 故二百四十二年無天王殺大夫文, 書諸侯殺大夫者四十七也, 何哉. 古者諸侯之大夫皆命於天子, 諸侯不得專命也, 大夫有罪則請於天子, 諸侯不得專殺也. 大夫猶不得專殺, 況世子母弟乎. 春秋之世, 國無大小, 其卿大夫士皆專命之, 有罪無罪皆專殺之, 其無王也甚矣. 故孔子從而錄之, 以誅其惡.

하고, 이를 경계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는 더 나아가 예치(禮治) 질서 아래에서 권력의 부여와 형벌의 집행은 모두 천자에게서 비롯되며, 제후는 단지 집행자일 뿐 자의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대부조차 마음대로 죽일 수 없는데, “세자모제(世子母弟)”와 같은 종실 중신 또한 자의로 죽일 수는 없다 따라서 “진인이 그들의 공자 어구를 죽인 사건”은 예제에 어긋난 것일 뿐만 아니라, 왕권의 통합성과 정통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중대한 위반 행위라 할 수 있다.

총론적으로 볼 때, 『춘추존왕발미』에서 손복은 “왕명존숭(王命尊崇)”이라는 핵심 이념을 중심으로 『춘추』 경문의 뜻을 정밀하게 해석하였다. 이는 왕명을 존중하고 왕제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의 경학적 입장과 정치적 이상을 잘 보여준다. 그는 주왕실이 동천한 이후 왕강(王綱)이 해이해지고, 제후가 권한을 남용하며, 국가의 예법 질서가 점차 붕괴되었다고 보았다. 『춘추』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미언대의의 서술을 통해 포폄의 의도를 담아내고, 천하의 정통성을 바로잡으며, 존왕(尊王)의 대의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손복은 “세록을 악으로 여김(惡世祿)”, “자의로 시호를 정하지 말 것(非自諡)”, “왕명의 아니면 전횡하지 말 것(不得專執)”, “왕명의 아니면 함부로 죽이지 말 것(不得專殺)” 등의 제도적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왕명에 대한 존숭은 단지 정치윤리상의 명분일 뿐만 아니라, 국가 질서, 신분 제도와 예제 규범을 유지하는 근본임을 밝혀냈다. 대부의 임명, 제후의 시호, 형벌과 정벌 등 모든 대사는 반드시 천자에게서 나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참람한 행위로 간주된다. 『춘추』의 필법에서 풍자와 비판

이 빈번히 사용되는 이유는 공자(孔子)가 문장을 통해 난세의 폐단을 기록하고, 예제의 실추를 바로잡으며, 왕명의 권위를 회복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곧 존왕(尊王)과 출패(黜霸), 질서 회복이라는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뜻이었다. 손복은 『춘추』를 경학적 해석의 매개로 삼아 “존왕”이라는 원칙을 통해 정치의 정통성을 천명하고, “왕명”의 권위를 빌려 혼란한 시대의 전횡을 비판하였다. 그의 해석은 송대 경학이 추구한 복례(復禮), 존왕, 중법통(重法統)의 사상적 경향을 반영하는 동시에 유학자의 입장에서 주례의 회복과 왕권의 강화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것이었다.

3. 주례(周禮)와 왕제(王製)에 대한 존송

손복은 『춘추존왕발미』에서 유가(儒家)의 경의(經義)를 핵심 기준으로 삼고, 『춘추』의 미언대의라는 서술 의도를 면밀히 분석하였다. 그는 예악(禮樂) 제도의 해석을 통해 제후가 예제를 넘는 행위가 왕제(王制)의 존엄을 어떻게 훼손하는지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공자(孔子)가 『춘추』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천자의 존위(尊位)와 주나라 왕조의 법통을 수호했는지를 논증하였다.

경학자들에게 주례(周禮)는 신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예제 규범이며, 그 중심에는 군주의 존귀한 지위를 수호한다는 내용이 자리한다. 따라서 손복은 군주의 권위 확립이 단지 지위와 권력의 우위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성문(成文) 제도를 통해 규범화되어

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왕제(王制)”는 곧 왕법(王法)으로, 천자 제도의 권위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왕제는 군신 간의 권한과 책임을 구분할 뿐만 아니라, 유가 정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기초이기도 하다. 손복은 왕제가 곧 나라를 다스리고 정치를 실행하는 근본이며, 천자의 존위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만들고 천하의 질서를 유지하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손복은 『춘추존왕발미』 곳곳에서 『춘추』의 미묘한 문장을 해석할 때 “왕제의 존엄”을 회복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하였다.

『춘추존왕발미』에서 손복은 춘추 시기 제후들이 천자의 제사 예의를 참람하게 사용한 현상에 대해 비판하였다. 이는 그의 “존왕(尊王)” 사상이 예제(禮制) 차원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준다. 제시는 고대 국가의 정치 및 종교 권위가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영역으로, 그 절차는 지극히 엄격하였다. 그러나 춘추 시대로 접어들면서 주왕실이 쇠미해지고, 예악이 붕괴되자 본래 천자에게만 허용되었던 제사 예식을 제후들이 자의로 시행하게 되었다. 예컨대, 「환공(桓公)」 5년에 “대우(大雩)”를 행한 것은 천자의 예로서 상제(上帝)에게 제사를 지낸 사례로, 중대한 참람 행위에 해당한다.

○ 『춘추』, 「환공」 5년에서 말하였다. “우제(虞祭)를 지냈다.”*

○ 『춘추존왕발미』, 「환공」 5년에서 말하였다. “이를 ‘대우(大雩)’라 하며, 이는 상제(上帝)에게 제사를 올리는 예이다. 천자는 상

* 『春秋』, 「桓公」 5년: [經]大雩.

제에게 제사하고, 제후는 산천(山川)과 백신(百神)에게 제사한다. 노나라는 제후국이므로 산천과 백신에게 제사함은 예에 부합하나, 상제에게 제사한 것은 예에 어긋나는 일이다. 희(噫), 이때는 이미 주나라 왕실이 쇠약해졌고, 왕강(王綱)이 끊어졌으며, 예악이 무너지고, 천하는 혼란에 빠졌다. 제후들의 참람함이 많았으며, 노나라의 사례만 들어도 제후가 참람한 현실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춘추』는 노나라의 사서(史書)로서 공자도 감히 직접적으로 이를 비판하지 못하였다. 다만, 재이(災異)가 자주 발생하거나, 제사가 때에 맞지 않게 시행되는 경우 등 비정상적인 현상이 있으면 이를 기록함으로써 천자에 대한 참람의 잘못을 암시하였다.”*

“대우(大雩)”는 국가의 대제(大祭) 가운데 하나로, 『주례(周禮)』의 전통에 따르면 오직 천자만이 대우의 예로 상제(上帝)에게 제사를 올릴 수 있다.** 제후는 지방의 산천(山川)과 백신(百神)에게만 제사할 수 있는데, 이는 천자와 제후를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제 중 하나이다. 따라서 손복은 노나라가 대우의 예로 천

* 孫復, 『春秋尊王發微』, 「桓公」 5년: 謂之大者, 雩於上帝也. 天子雩於上帝, 諸侯雩於山川百神. 魯諸侯也, 雩於山川百神, 禮也. 雩於上帝, 非禮也. 噫. 是時周室既微, 王綱既絕, 禮樂崩壞, 天下蕩蕩, 諸侯之僭者多矣. 舉於魯, 則諸侯僭之從可見矣. 然春秋魯史, 孔子不敢斥也. 其或災異非常, 改作不時者, 則從而錄之, 以著其僭天子之惡.

** 『주례주소(周禮註疏)』, 「춘관(春官) · 대종백(大宗伯)」에서는 오례(五禮): 吉禮 · 凶禮 · 賓禮 · 軍禮 · 嘉禮를 구분한다. 그중 길례(吉禮)는 제사의 예로, “길례로써 나라의 귀신과 신령을 섬긴다(以吉禮事邦國之鬼神祇)”고 하였다. 제사의 대상은 인귀(人鬼), 천신(天神), 지지(地祇)로 나뉜다. 천자(天子)는 상제(上帝)에게 제사할 수 있으며, 제후의 제사가 그 경내(境內)의 명산대천에 망제(望祭)하는 데 불과하였다. 천자가 우제를 올리는 경우는 “대우(大雩)”라 하며, 제후는 단지 “우(雩)”라 부른다.

제를 올린 것을 중대한 왕제(王制)의 참람 행위로 판단하였으며, 주나라 왕실의 예법 제도에 대한 도전이라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예를 어긴 행위에 대해 『춘추』는 명확한 언어로 비판하지 않는다. 공자(孔子)는 단지 “대우”라는 두 글자로 그 사실을 기록하였을 뿐, 상세한 질책은 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손복은 해석을 덧붙인다. 공자는 노나라 사람이면서 『춘추』의 사료를 노나라의 역사에서 취하였기 때문에 본국의 잘못을 직접적으로 꾸짖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 그 대신 “재이(災異)가 빈번하거나”, “제사의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과 같은 특수한 서술 방식을 통해 참람 행위를 은근히 경계하였다. 이는 곧 미언대의의 방식으로 예제의 위반을 기록하고, 왕법을 바로 세우며, 존왕(尊王)의 의리를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손복의 존왕 사상에서 매우 핵심적인 일면을 보여준다. 존왕은 곧 존례(尊禮)이며, 예는 곧 왕제의 제도적 구현이기 때문이다. 손복은 『춘추』의 문장 분석을 통해 공자가 문필을 통해 제후의 참람을 경계하고 천자의 존엄을 드러내고자 하였음을 밝히며, 나아가 예악 제도의 회복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절실한지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 『춘추』, 「민공」 2년에서 말하였다. “여름 5월 을유일에 장공(莊公)에게 길체(吉禘)를 지냈다.”*
- 『춘추존왕발미』, 「민공」 2년에서 말하였다. “장공(莊公)에게 길체(吉禘)를 지낸 것은 예에 맞지 않는다. 노나라는 주공(周公)을

* 『春秋』, 「閔公」 2년: [經]夏五月乙酉, 吉禘于莊公.

태묘(太廟)에 제사하였는데, 이는 천자의 대제(大祭)로서 제후가 사용할 수 있는 예가 아니다.”*

체(禘)는 역대 조상을 함께 제사하는 대규모 제의로서, 상례(喪禮)가 흉례(凶禮)에 해당하는 것과 달리 조상의 보우를 기원하는 길례(吉禮)로 간주된다. 『예기(禮記)』 및 『주례(周禮)』의 제도에 따르면 체례는 천자만이 거행할 수 있는 대제(大祭)인데, 태묘(太廟)에서 공덕이 큰 선조와 상제(上帝)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제후는 고조(高祖), 현조(顯祖)와 같은 조상에게만 제사할 수 있으며, 자의적으로 체례를 행할 수 없다. 노나라가 장공(莊公)에게 길체(吉禘)를 지낸 것은 장공을 태묘의 역대 선조들과 함께 제사한

* 孫復, 『春秋尊王發微』, 「閔公」 2년: 吉禘於莊公, 非禮也. 魯以周公禘於太廟, 此天子大祭, 非諸侯可得用也.

** 『禮記註疏』, 「大傳」: 不王不禘, 王者禘其祖之所自出, 以其祖配之. “왕이 아니면 제사[禘]를 지내지 않는다. 왕자는 자기 조상이 나온 곳을 제사[禘] 지내고, 그 조상을 배향한다.”

『禮記註疏』, 「明堂位」: 季夏六月, 以禘禮祀周公於太廟, 牲用白牡. 尊用犧象山罍, 郁尊用黃目. 灌用玉瓚大圭. 薦用玉豆雕簠. 爵用玉琖仍雕, 加以璧散璧角. 俎用琯簋. “계하(季夏) 6월에, 체례로써 주공을 태묘에서 제사 지낸다. 희생은 흰색의 수컷인 백모(白牡)를 사용하고, 술그릇은 희(犧)·상(象)·산뢰(山罍)를 쓰며, 올창주를 담는 그릇인 울준(鬱尊)은 황목(黃目)을 쓴다. 올창주를 시(尸)에 바치는 그릇인 관(灌)은 옥찬대규(玉瓚大圭)를 쓴다. 바치는 천(薦)은 옥두(玉豆)와 조산(雕簠)을 쓴다. 작(爵)은 옥잔잉조(玉琖仍雕)를 사용한다. 가(加)는 벽산(璧散)과 벽각(璧角)을 사용하며, 조(俎)는 완궐(琯簋)을 쓴다.”

정약용, 『논어고금주』, 「팔일」: 然周禮六篇, 都無禘字, 惟五帝之祭, 散見六官. 小宗伯云: 建國之神位, 兆五帝於四郊. (….) 周定王·楚射父, 每以禘·郊之事雙舉並稱, 而其在周禮, 惟五帝之祭, 其儀物如郊, 則此眞先王之所謂禘者, 而二千年來, 無有一人指此爲禘者. 又凡祭帝曰禘, 故王者報本之祭, 亦名爲禘. 그러나 『주례(周禮)』 육편에는 모두 ‘체(禘)’라는 글자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오제(五帝)에 대한 제사는 육관(六官) 곳곳에 흩어져 나타난다. 『주례』, 「춘관종백(春官宗伯)」에서는 “나리를 세운 신위에는 사방 교외에 오제를 제사한다”고 하였다. (….) 주정왕(周定王)과 초나라 사부(楚射父)는 항상 체례(禘禮)와 교례(郊禮)를 함께 언급하였는데, 『주례』에서는 오제를 제사하는 의례가 곧 교례와 같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는 참으로 선왕(先王)이 말한 체(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천여 년 동안 아무도 이것을 체라 지칭한 사람이 없었다. 또한 모든 ‘제(祭)’ 중,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을 ‘체(禘)’라 한다. 그러므로 왕자가 근본에 보답하는 제사 또한 ‘체’라 불리는 것이다.

것이며, 예제에 어긋나는 일이다. 고대에는 삼년상(三年喪)이 25개월이었고, 예에 따르면 상기가 차지 않은 상태에서는 체례를 행할 수 없었다. 『춘추좌씨전』·『춘추공양전』·『춘추곡량전』에서는 『춘추』가 “장공(莊公)에게 길체(吉禘)를 지냈다.”라고 기록한 것은 장공의 상기가 아직 삼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민공(閔公)이 체례를 앞당겨 거행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러나 오직 손복만이 체례는 천자의 전례이며, 제후가 이를 행한 것은 천자의 예를 참람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였고, 『춘추』가 민공의 행위를 비례(非禮)로 비판한 것이라 보았다.

손복의 견해에 따르면 체례(禘禮)는 주나라 왕조의 법통과 예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제도이다. 노나라는 본래 주공(周公)의 후예가 봉해진 나라로 문화 전통의 계승지라는 위상을 지니고 있었으나, 결국에는 제후의 지위에 속한다. 그러한 노나라가 체례를 자국의 선군인 장공(莊公)에게 행한 것은 왕제(王制)의 제사 등급 질서를 심각하게 참람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춘추』가 “장공(莊公)에게 길체(吉禘)를 지냈다.”라고 기록한 것은 비록 명확하게

* 『春秋左氏傳註疏』, 「閔公」 2년: [傳]夏, 吉禘於莊公, 速也. 여름에 장공에게 길체를 지냈으니, 시기가 너무 빨랐다.

『春秋公羊傳註疏』, 「閔公」 2년: [傳]其言吉何. 言吉者, 未可以吉也. 曷為未可以吉, 未三年也. 三年矣, 曷為謂之未三年, 三年之喪, 實以二十五月. 其言於莊公何, 未可以稱宮廟也. 曷為未可以稱宮廟, 在三年之中矣. 吉禘於莊公, 何以書, 譏. 何譏爾, 譏始不三年也. 길을 언급한 것은 무슨 뜻인가? 길이라고 말한 것은 가히 길하지 않은 것이다. 왜 가히 길하지 않다고 하였는가? 3년이 못 되었기 때문이다. 3년인데 왜 3년이 못되었다고 이르는가? 3년의 상은 실제로 25개월이다. 그런데 장공을 말한 것은 무슨 뜻인가? 가히 공묘를 일컬지 못한 것이다. 왜 가히 써 공묘를 일컬지 못하는 것인가? 3년의 안에 있기 때문이다. 장공의 길체를 왜 기록하였는가? 책망한 것이다. 왜 이를 책망하였는가? 시작부터 3년의 상기를 지키지 않은 것을 책망한 것이다.

『春秋穀梁傳註疏』, 「閔公」 2년: [傳]吉禘者, 不吉者也. 喪事未畢而舉吉祭, 故非之也. 길체란 길하지 않은 것이다. 상사를 다 마치지 않았는데 길체를 거행한 일을 비난한 것이다.

포편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것이야말로 『춘추』의 필법 중 하나이다. 즉, 사실을 곧이곧대로 기록함으로써 그 잘못을 드러내고, 예례의 위반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천자의 존엄과 왕제의 정당성을 수호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춘추존왕발미』에서 여러 차례 언급된 “공자가 『춘추』를 지은 것은 왕법을 바로잡기 위함”이며, “필법을 통해 비례(非禮)를 비판한 것”이라는 주장과 맥락을 같이한다. 손복은 여기서 단순히 예례의 적합 여부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하나의 계기로 삼아 “존왕”이라는 이념 뒤에 놓인 예제 논리와 제도 권위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의 사유 체계에서는 예법 제도가 곧 왕권의 상징이며, 왕명과 왕제의 붕괴는 곧 천하 무질서의 근원이 된다. 제후의 참례는 바로 “천하에 왕이 없음(天下無王)”^{*}을 야기하는 구체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춘추』, 「은공」 5년에서 말하였다. “처음으로 육우(六羽)를 바쳤다.”^{**}

○『춘추존왕발미』, 「은공」 5년에서 말하였다. “음으로 육우를 바쳤다.”라 한 것은 노나라가 천자의 예악(禮樂)을 참람하게 사용하였음을 의미한다. 무(舞)는 팔일(八佾)을 사용하였으나, 공자(孔子)는 감히 이를 직접 비판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에 따라 육우(六羽)를 감축하여 기록함으로써 노나라가 천자의 예를 참람한 잘못을 드러낸 것이다.”^{***}

* 孫復, 『春秋尊王發微』, 「隱公」 원년.

** 『春秋』, 「隱公」 5년: [經]初獻六羽.

*** 孫復, 『春秋尊王發微』, 「隱公」 5년: 其言初獻六羽者, 魯僭用天子禮樂, 舞則八佾, 孔子不敢斥也. 故因此減用六羽, 以見其僭天子之惡.

여기서 말하는 “육우(六羽)”는 제사 무용(舞踊)에서 사용되는 깃 장식을 가리킨다. 『주례』에 따르면, 천자는 팔일무(八佾舞)를 사용하고, 제후는 사일무(四佾舞)를 넘을 수 없다.* 그러나 노나라는 주공(周公)의 후예임을 자처하며, 문화와 예제에 있어 자부심이 컸고, 실제로 천자의 예악 제도를 참람하게 사용하였다. 예컨대 『논어(論語)』, 「팔일(八佾)」에는 “삼가가 응시(雍詩)를 외며 철상(徹床)하니, 공자가 말하였다. ‘제사를 돕는 벽공이 있으니 천자는 장중한 모습으로 제사를 주관하신다.’는 시를 어째서 삼가의 묘당에서 취하여 쓰는가?”**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공자가 노나라 귀족들이 천자의 예악을 참람하게 사용한 것을 “대악(大惡)”이라 명백히 지적한 예이다. 그러나 『춘추』는 노나라의 역사서이기 때문에 공자는 자국의 잘못을 직접적으로 책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그는 “미언(微言)”을 통해 우회적으로 비판할 수 밖에 없었다. 여기에서 손복은 “육우”라는 표현에 주목하였는데, 이것이 공자의 필삭(筆削)이 반영된 “감제(減制)”라 보았다. 천자의 팔일무에는 본래 팔우(八羽)를 쓰는 것이 원칙이나, 노나라는 이를 육우로 줄여 사용하였다. 이는 격을 낮춘 것이긴 하지만 여전히 참례(僭禮)에 해당한다. 『춘추』가 “육우”를 그대로 기록한 것은, 노나라가 천자의 예를 참람한 것을 미묘하게 풍자하고 은근히 폄하한 서술 방식이라 할 수 있다.

* 『周禮註疏』, 「夏官司馬」: 凡樂事, 正舞位, 授舞器. 位, 佾處. (….) 云‘位, 佾處’者, 即謂天子八佾, 諸公六佾, 諸侯四佾之等也.

** 『論語註疏』, 「八佾」: 三家者以雍徹, 子曰, 相維辟公, 天子穆穆, 奚取於三家之堂.

○『춘추』, 「양공」 11년에서 말하였다. “봄 주왕 정월에 노나라가 군대를 삼군으로 편성하였다.”*

○『춘추존왕발미』, 「양공」 11년에서 말하였다. “삼군을 설치한 것은 성왕(聖王)의 제도를 어지럽힌 것이다. 옛 제도에 따르면, 천자는 육군(六軍)을 두고, 대국은 삼군, 차국(次國)은 이군(二軍), 소국은 일군(一軍)을 두었다. 노나라는 차국에 해당하는데, 차국의 지위로서 삼군을 설치한 것은 성왕의 제도를 어지럽힌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손복은 『주례』 등의 경전을 근거로 고대 성왕(聖王)이 군제(軍制)를 제정할 때 명확한 등급 구분이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천자(天子)는 육군(六軍)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는 천하의 지배자로서 절대적인 무력과 통치권을 상징한다. 대국은 삼군(三軍), 차국(次國)은 이군(二軍), 소국은 일군(一軍)을 두었고, 각국은 그 정치적 위계에 따라 군사 규모를 갖추었다. 이러한 제도는 단순한 군사 조직이 아니라, 정치적 계급과 권력의 경계를 나타내는 상징이었으며, 주례는 국가 체계의 질서를 정립하는 데 그 의의가 있었다. 노나라는 “차국”에 해당하므로, 예에 따르면 이군만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노나라가 “삼군을 설치한 것”은 이미 그 신분을 넘어서 대국의 제도를 참람한 것이다. 손복이 말한 “차국으로서 삼군을 설치하는 것은 성왕의 제도를 어지럽히는 일이다.”라는

* 『春秋』, 「襄公」 11년: [經]十有一年春王正月, 作三軍.

** 孫復, 『春秋尊王發微』, 「襄公」 11년: 作三軍, 亂聖王之製也. 古者天子六軍, 大國三軍, 次國二軍, 小國一軍. 魯次國, 以次國而作三軍, 亂聖王之製何也.

*** 『周禮註疏』, 「夏官司馬」: 凡製軍, 萬有二千五百人為軍. 王六軍, 大國三軍, 次國二軍, 小國一軍.

구절은 예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비판을 담고 있다. 『춘추』는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았지만 “삼군으로 편성하였다.”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함으로써, 공자(孔子)의 포폄을 담아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작(作)”은 단순한 제도 시행이 아니라, 제도를 초월한 조작 행위임을 가리킨다. 따라서 손복은 이 구절에 노골적인 비난의 표현이 없더라도 “작(作)”이라는 단어 자체가 군제 창설의 주체성과 참람을 지적하는 표현이라고 보았고, 공자가 『춘추』의 서법을 통해 노나라의 제도 파괴를 풍자하고 비판하고자 했음을 읽어내었다.

총괄하자면, 『춘추존왕발미』에서 손복이 전개한 의리적 구성은 “존왕” 사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단순히 천자의 지위와 왕명 권위를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례(周禮) 제도와 ‘왕제(王制)’ 체계에 대한 깊은 존중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그는 왕도 정치가 성립될 수 있는 기반은 추상적인 도덕 이상이나 성인의 훈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오히려 그것은 구체적인 예제 규범 안에서 실현되어야 하며, 예악 제도, 신분 제도, 정령(政令) 제도 등 각종 ‘왕법(王法)’을 통해 관철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틀 속에서 손복은 춘추 시기 제후들의 ‘참례(僭禮)’ 현상이 주나라 왕조의 법통과 예제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간주하였다. 그는 공자(孔子)가 『춘추』를 지은 목적이 바로 ‘미언대의’의 방식으로 ‘왕법(王法)’을 바로 세우고 주제(周制)를 존중하려는 데 있다고 보았다. “대우(大雩)”, “길제(吉禘)”, “육우(六羽)”, “삼군(三軍)” 등은 모두 천자의 제도를 참람하여 사용한

사례이며, 『춘추』의 서술 방식 또한 이를 암묵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예컨대 “제상제(祭上帝)라 하지 않고 “대우”라 기록하고, “비례(非禮)”라는 표현 없이 “길체”라 썼으며, “삼군으로 편성하였다.”라 하여 제도를 초월했음을 드러낸다. 이 모두는 공자가 ‘왕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사용한 필법상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손복의 ‘존왕(尊王)’ 사상은 주례(周禮)를 중심으로 하는 제도 체계의 회복을 전면적으로 주장하였다. 그는 ‘경(經)’을 기준으로 삼고, ‘예(禮)’를 준칙으로 삼아 공자의 필삭 의도와 당대의 예제 혼란을 대비시켰으며, 이를 통해 예악 질서에 대한 우려와 정치적 재건에 대한 강한 열망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사유는 『춘추』의 ‘존왕’ 의리(義理)를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후 송대 성리학이 ‘예(禮)’로써 교화를 세우고, ‘제도(制度)’로써 나라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사상 전통에 기반을 마련하였다.

III. 결론

■ 손복의 『춘추존왕발미』는 북송 시기 춘추학 전환기의 중요한 대표 저작으로, 『춘추』 경문을 해석의 중심에 두고 경문의 의미로 회귀하고자 하였다. 그는 세밀한 문자의 분석과 예제(禮制)·의리(義理)에 대한 체계적 설명을 통해 주석과 논증 속에 정치적·윤리적 의식과 제도 비판 정신을 담아냈다. 손복은 공자(孔子)의 “미언대의”라는 필삭 정신을 해석의 핵심 틀로 삼고, 춘추시대 왕도(王道)의 질서가 해체되어 제후가 참람하던 역사를 분석하고,

예제 붕괴와 왕권 쇠퇴에 대한 사고를 전개하였다. 나아가 그는 유가의 정치 이상으로서 왕도 질서의 재건을 주장하였다. 『춘추 존왕발미』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사상적 핵심은 바로 “존왕(尊王)”을 중심으로 하는 체계적 논의이다. 이 사상은 한·당(漢·唐) 이후의 『춘추』 의례 전통을 계승하는 동시에 송대 사대부들이 현실 정치의 위기를 자각하고, 예법 질서의 재구축을 모색하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춘추존왕발미』에서의 “존왕(尊王)” 사상은 상호 보완되는 세 가지 층위로 나타난다. 첫째, 천자에 대한 존숭은 존왕 사상의 기본 출발점이다. 손복은 비록 춘추 시대에 주왕실의 권위가 쇠퇴하고 왕명이 통하지 않았더라도 공자는 『춘추』의 서술 방식으로 천자의 체면과 예제적 지위를 수호하고자 하였다고 간주한다. 예컨대 “천왕이 재주공을 보내어 빙문하였다.[天王使宰周公來聘]”, “천왕이 정나라로 가서 거처하였다.[天王出居于鄭]” 등의 구절은 완곡하면서도 의미심장한 표현을 통해 “왕강해뉴(王綱解紐)”의 현실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데, 이는 유가의 “존군억패(尊君抑霸)”적 역사관을 반영하는 것이다. 둘째, 왕명에 대한 존숭은 주로 천자가 관원의 임명, 작위의 봉책·시호, 생사 판단 등의 제도적 권위를 어떻게 수호하는가에 집중된다. 손복은 왕명이야말로 관직 정당성의 유일한 근거라고 강조하며, 대부가 자의적으로 세습하거나, 스스로 시호를 정하거나, 사형을 독단적으로 집행하는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춘추』 경문에 나타나는 “대부가 칭하지 않음[不稱大夫]”, “사람이라 하여 작위를 박탈함[稱人奪爵]”, “세습을 악으로 여김[惡世祿]”, “왕명이 아니면 직무를 맡을 수 없

음[非王命不得執]” 등의 구절을 세밀히 해석하며, 공자가 서술을 통해 시비를 분별하고, 어지러운 신하를 내침으로써 왕명을 바로 세우고자 했음을 밝혔다. 셋째, 주례(周禮)와 왕제(王制)에 대한 존숭은 참례(僭禮), 월제(越制), 난정(亂政) 등의 행위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난다. 손복은 노나라가 대우(大雩) 제사를 통해 하늘에 제사하고, 시기보다 앞서 길체(吉禘) 예를 시행하며, 천자의 음악과 군제를 모방하는 것 등은 모두 예악이 무너진 상징으로 보았다. 비록 『춘추』가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비난하지 않더라도 “미언(微言)”을 통해 부정적으로 서술한 것은 “예로써 정치를 세운다.(禮以制治)”는 이상적 왕정을 수호하고자 노력한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종합하자면, 손복의 ‘존왕(尊王)’ 사상은 『춘추』를 근거로 시대의 혼란에 응답하고, 현실 정치의 이상을 표현하는 장치이다. 그는 『춘추』를 기초로 ‘왕강(王綱)’의 재건과 중앙집권 및 계급 질서의 회복을 주장하였다. 예법을 통해 군신 관계를 규제하고 지방의 분열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존왕’ 사상은 송대 정치·문화와도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다. 이는 송대 유가들이 경전을 통해 도리를 밝히고, 이를 국가 정치에 적용하고자 했던 학술적 의지와 정치적 포부를 반영한 것이다. 더 나아가 『춘추존왕발미』는 단순히 경전 해석을 넘어 송대 주돈이(周敦頤), 정호(程顥), 정이(程頤) 등 성리학자들에게 ‘예악 질서’에 대한 사상적 기반과 이론적 단초를 제공하였다. 역사적 맥락에서 손복의 공헌은 방법론적 혁신과 춘추의 의례적 사례를 차용하여 제도를 비판하고 정치적 이상을 제시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춘추존왕발미』의 ‘존왕’ 사상은 경학 해석 체계인 동시에 송대 유가가 경전을 통해 도

를 밝히고 정치를 시행하고자 했던 사례가 된다. 이는 송대 경학의 의리화 경향, 예제 정치의 이론적 기반, 그리고 춘추학의 발전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된다. 즉, 손복의 ‘존왕’ 사상은 춘추학사에서 선구적 역할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송대 경학 및 정치 사상의 발전에서도 영향을 미쳤다. 그의 사상은 학문적 가치와 사상적 의미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심화된 연구와 재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 『孟子註疏』
- ◆ 『論語註疏』
- ◆ 『周禮註疏』
- ◆ 『禮記註疏』
- ◆ 『春秋公羊傳註疏』
- ◆ 『春秋左氏傳註疏』
- ◆ 『春秋穀梁傳注疏』
- ◆ 『文淵閣四庫全書』
- ◆ 『四庫全書總目』
- ◆ 丁若鏞, 『與猶堂全書』, 서울: 驪江出版社, 1985.
- ◆ 脱 脱, 『宋史』, 「儒林传」, 北京: 中華書局, 1995.
- ◆ 黄宗羲, 『宋元学案』, 「泰山学案」, 北京: 中華書局, 1986.
- ◆ 石 介, 『徂徠石先生文集』, 北京: 中華書局, 1984.
- ◆ 歐陽修, 『歐陽文忠公集』, 上海: 上海書店, 1926.
- ◆ 李 燾, 『續資治通鑑長編』, 北京: 中華書局, 1979.
- ◆ 司馬光, 『涑水紀聞』, 北京: 中華書局, 1989.
- ◆ 王夫之, 『宋論』, 北京: 中華書局, 1995.
- ◆ 王 博, 『孫復『春秋尊王發微』之“尊王”研究』, 中國政法大學, 2014.



■ 손복(孫復)의 『춘추존왕발미(春秋尊王發微)』는 북송(北宋) 초기 “사전독경(舍傳讀經)”의 춘추학풍이 본격적으로 대두되던 시기의 대표적인 저작으로, 『춘추』의 경의(經義)를 통해 정치 질서를 재건하고 예법과 강상(綱常)을 회복하고자 했던 시대적 의도를 잘 보여준다. 본 연구는 “존왕(尊王)” 사상을 중심으로 『춘추』 경문을 조목조목 세밀하게 분석하여 공자가 간결한 문구와 절제된 필법을 통해 포폄(褒貶)을 드러내고, 존비(尊卑)를 밝히며, 명분(名分)을 바로잡고자 했던 경학적 논리를 해명하고자 한다. 손복의 “존왕” 사상은 한유(漢儒) 금문학과(今文學派)의 “존왕양이(尊王攘夷)” 전통을 계승함과 동시에, 『주례(周禮)』, 『예기(禮記)』 등의 예제 문헌과 결합하여 제도적 근거와 명분 논리를 갖춘 독자적인 경학 체계를 구축하였다.

본고는 『춘추존왕발미』에 나타난 “존왕” 사상의 구체적 함의를 세 가지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천자에 대한 존숭”은 천자가 천하의 공동 주재자임을 강조하며, 그 위상은 예로써 저울질할 수 없고 왕사는 능멸할 수 없음을 주장한다. 설령 주나라 왕실이 쇠미하더라도, 『춘추』는 필삭(筆削)을 통해 그 명분과 체면을 지키려 하였다. 둘째, “왕명에 대한 존숭”은

“천자의 명령을 받은 대부”만이 정당한 관료임을 내세우며, 제후는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됨을 강조한다. 왕명을 받지 않은 자는 모두 세습된 작위를 빙자한 찬탈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 필삭과 비판이 가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주례 및 왕제에 대한 존숭”은 공자가 『춘추』의 서술 방식을 통해 제후의 예제 찬탈과 제도 질서의 파괴를 드러냄으로써, 예제의 존엄을 회복하고 왕제의 정통성을 천명하고자 하였음을 밝힌다.

손복의 해경 방법은 의리(義理)를 중시하고 제도를 강조하며, 서법에 포폄의 뜻을 담는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는 송대(宋代) 춘추학의 의리화(義理化) 경향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북송 “예치정치(禮治政治)” 이론의 형성에도 사상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본고는 텍스트 분석과 경학적 의리 체계의 정리를 통해 『춘추존왕발미』에 담긴 “존왕” 사상의 경학 논리와 정치적 함의 및 제도적 내용을 규명함으로써, 북송 춘추학 및 정치사상사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자 한다.

[illegible]

주제어: 손복(孫復), 『춘추존왕발미(春秋尊王發微)』, 존왕사상(尊王思想), 춘추학(春秋學), 북송 경학(北宋經學)



A Study on “Honoring the King (Zunwang)” Thought in Sun Fu’s Chunqiu Zunwang Fawei

Zhang, Xiang Liang

(SUNGKYUNKWAN UNIVERSITY · Confucian Studies, Eastern Philosophy and
Korean Philosophy)

■ Sun Fu’s Chunqiu Zunwang Fawei (春秋尊王發微) is representative of the early Northern Song scholarship that emerged during the rise of the *shechuan dujing* (舍傳讀經) trend, which prioritized direct engagement with the Chunqiu classic over reliance on traditional commentary. This text exemplifies a conscious effort to restore political order and revive ritual and moral norms (*li* and *gangchang*) through the ethical principles (*jingyi*) embedded in the Chunqiu. Centering on the ideology of “honoring the king” (*zunwang*), this study provides a detailed textual analysis of the Chunqiu, illuminating how Confucius employed terse phrasing and restrained editorial technique

(*bishuo*) to express praise or censure, clarify hierarchy, and rectify names and roles.

Sun Fu's *zunwang* thought inherits the "honoring the king and repelling the barbarians" (*zunwang rangyi*) tradition of Han dynasty New Text scholars while constructing an independent exegetical system rooted in ritual texts such as the *Zhouli* and *Liji*. His approach combines normative justification with institutional reasoning.

This article explores the substantive dimensions of *zunwang* ideology in Chunqiu Zunwang Fawei from three perspectives. First, the reverence of the Son of Heaven (*tianzi*) emphasizes his irreplaceable role as the universal sovereign, whose dignity must not be diminished. Even during the decline of the Zhou royal house, the Chunqiu preserves his legitimacy and symbolic authority through careful textual revision. Second, the reverence for royal commands (*wangming*) asserts that only ministers appointed by the Son of Heaven are legitimate; feudal lords acting without such command are deemed usurpers whose actions warrant textual rebuke. Third, respect for the Zhou ritual system (*wangzhi*) reveals how Confucius, through editorial choices in the Chunqiu, exposed the ritual transgressions and institutional overreach of regional lords, thereby reinforcing the normative authority of royal rites and asserting the legitimacy of Zhou governance.

Sun Fu's exegetical method places great emphasis on moral principle (*yili*), institutional structure, and the implicit function of praise and blame in historiographical technique. This approach laid a critical foundation for the *yili*-oriented transformation of Chunqiu studies in the Song Dynasty and contributed intellectually to the formation of the Northern Song's "rule-by-ritual" (*lizhi zhengzhi*) political theory. Through textual analysis and the systematization of Sun Fu's exegetical logic,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ideological, political, and institutional implications of *zunwang* in Chunqiu Zunwang Fawei, thereby deepening our understanding of Northern Song Chunqiu scholarship and its broader political thought.

Keywords: Sun Fu, Chunqiu Zunwang Fawei, *zunwang* ideology, Chunqiu studies, Northern Song Confucianism

- ◎ 투고 접수 2025. 07. 07.
- ◎ 심사 완료 2025. 08. 18.
- ◎ 게재 결정 2025. 08. 18.